

정답과 해설

I. 수필 문학	308
II. 극 문학	324

정답과 해설

I. 수필 문학

1 | 한국 수필

001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_ 이봉창 022~023쪽

키포인트 체크 독립운동, 조선인, 시간

1 ㉔ 2 ㉔ 3 ㉔ 4 ㉔ 5 일왕을 암살하려 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운동도 정당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 1 글쓴이가 1930년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것은 맞으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건너간 것이 아니라 친구로부터 상하이에 있는 영국 전자 회사가 조선 사람을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어서이다. 글쓴이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상하이에서 백정선을 만난 뒤 독립 정신에 빠져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보기>는 이봉창이 조선 패망과 일본 합병의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고통을 느낀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것에 자괴감을 갖고 일본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일을 후회하는 ㉔가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다.
- 3 이봉창은 일본인 행세를 하며 살다가 그것이 거짓된 삶을 자각하고 조선인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 취직을 위해 상하이의 임시 정부를 찾아가다가 백정선을 만난 이봉창은 자신의 이력과 일본의 실정을 알린 후 독립 정신을 갖고 수류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일으키게 된다.
- 4 (가)에서는 한문과 한글이 섞인 편지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장에 갇혔던 경험을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 민족적 차별을 당하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는 일본인으로 행세하며 점원 생활을 했던 경험을 통해 조선인으로 살지 않은 것은 거짓이며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임을 자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5 이 글은 이봉창이 거사를 실패한 뒤 구속된 상태에서 일본 예심 판사에게 제출한 수기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는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제출한다. 즉, 이 글은 일왕을 암살하려 했던 결심과 관련한 여러 사건을 밝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고, 더 나아가 조선의 독립운동도 정당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002 **산촌 여정** _ 이상 024~025쪽

키포인트 체크 도회(도시), 산촌, 비유

1 ㉑ 2 ㉔ 3 ㉔ 4 글쓴이는 도회에 남기고 온 가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이 글은 경어체의 친근한 어조를 통해 산촌의 풍경에 대한 소개와 도회 생활 및 산촌 생활에 대한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도회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 걱정하는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㉔ '정 형!'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글이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벼짙이 소리를 '도회의 여자장이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 가위 소리' 등의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4 '엠비제이의 미각',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 등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 5 이 글은 시각적·청각적·후각적 표현 등을 통해 도시에서 산촌으로 내려와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2 이 글에 나타난 '팔봉산'은 글쓴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산촌의 자연을 의미한다. 반면 <보기>의 '팔봉산'은 글쓴이에게 벽촌 생활을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3 '귀에 보이는' 것은 '지난날의 기사'로 이는 과거 도시에서의 삶과 관련 있다. 벌레 소리를 듣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 4 산촌(성진)에 내려와서 지내고 있는 글쓴이는 도회(서울)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수심이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003 **권태** _ 이상 026~027쪽

키포인트 체크 풍경, 권태, 심리

1 ㉓ 2 ㉓ 3 ㉔ 4 ㉔ 5 사회가 할 일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 1 이 글은 일상적 생활과 변화 없는 주변 환경에 대한 글쓴이의 심리를 드러낸 수필로, 중심 사건의 인과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① 글쓴이는 자신의 권태를 마을 사람들의 삶에 투영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명석 위에 누운 사람들을 '먹고 잘 줄 아는 시체'라며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④ '지구 표면적의 ~ 앓을 수 없었다.'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벌판을 공포스럽고 단조롭게 느끼는 글쓴이의 심리를 투영하여 자연의 조물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주로 '-니다'의 현재 시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현재의 생활에 대한 글쓴이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2 ㉔은 글쓴이가 시골에 처음 왔을 때 느낀 초록의 신선한 이미지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재 글쓴이에게 권태를 떠올리게 하는 자연이 지닌 초록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 3 <보기>에서 글쓴이는 불을 향해 날아들어 죽고 마는 '불나비'를 보면서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라고 생각한다. 즉, 글쓴이는 '불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불나비'는 불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열을 불태우는 생물이자, 따라서 글쓴이는 '불나비'와 같은 삶, 즉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열을 불태우는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 4 ㉑ '모깃불의 연기'는 명석 위에 누운 사람들의 모습과 동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그들에게서 느끼는 삶의 권태와 유사한 의미이다.

5 <보기>에서는 식민지 지식인들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현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이 글의 글쓴이도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삶의 목표를 잃고 적극적인 가치 의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4 여백을 위한 잡담_ 박태원 028-029쪽

키포인트 체크 머리 모양, 유지, 솔직

1 ③ 2 ④ 3 머리터럭을 이마 위에다 가지런히 추려 한일자로 자르는 방식 4 ②

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머리 모양 때문에 성격과 인간됨, 문학 활동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머리 모양이 왜 남다른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동안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현재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글쓴이가 자신의 머리 다스리는 방식이 악취미임을 수긍하고 있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적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글쓴이는 자신의 머리를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사람들이 글쓴이의 '머리를 비난하고', '사람됨에까지 논란을 켜' 일어난 글을 쓰게 된 계기로서 <보기>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경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그만 머리를 고치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 '얼마 동안 이대로 지내'겠다는 것은 <보기>에서 글쓴이의 생활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글쓴이가 자신의 '악취미를 슬프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설명을 하며 자신의 머리터럭이 역세고 천성이 게으르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3 '이마 위에다 가지런히 추려 가지고 한일자로 자른 머리', '이것들을 이마 위에다 가지런히 추려 가지고 한일자로 자르는 방법이였다.' 등을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머리를 다스리는 독특한 방식을 알 수 있다.

4 '나의 머리가 것처럼 고집 센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고집 센 역센 머리터럭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현재 머리를 다스리는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005 바다_ 이태준 030-031쪽

키포인트 체크 바다, 상상, 활유법

1 ⑤ 2 ④ 3 ③ 4 구름이 피어올라 있음, 바닷가(모래사장)를 달림.

1 이 글은 글쓴이만의 독특한 인식을 바탕으로 바다와 관련된 상상을 제시하고 바다의 웅장함과 역동성이 주는 감동을 진솔하고 드러내고 있다.

2 '갈매기 소리'와 '쨍쨍한 모새발'은 모두 8월의 바다를 묘사하는 데 쓰인 소재일 뿐 계절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③ '지구가 아니라 수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인간이 땅에서 사는 포유류가 아닌 '어족'이라는 가정이 전제된 것으로, 이러한 가정은 글쓴이의 독특한 시각과 상상력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화전 지대'에 사는 '소년'은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보기>의 '나비'는 바다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바다를 '청 무우밭'으로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과 '나비'에게 '바다'는 미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에서 '바다'는 그리움의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보기>의 '바다'는 나비에게 동경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일 뿐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② 이 글에서 '바다'는 시각적·청각적 심상을 통해, <보기>의 '바다'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④ <보기>의 '나비'는 '바다'로부터 상처를 받는 존재이나, 이 글에서 '바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⑤ 동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의 '바다'이다.

4 '구름은 몽게몽게 이상향의 성곽처럼 피어오르고'로 보아 배경으로는 멀리 수평선 근처에서 구름이 피어올라 있는 모습이 적절하다. 또 '뛰어들어 비어가 ~ 뛰고 또 뛰고……'로 보아 배우는 물결을 따르듯 바닷가를 달리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006 파초_ 이태준 032-033쪽

키포인트 체크 파초, 비판, 대화

1 ② 2 ④ 3 ② 4 ④ 5 행에 비 맞는 소리가 커서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이 글에는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진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학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글쓴이와 앞집 사람의 실제 대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③ 크게 성장한 파초가 비를 맞는 모습을 미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파초를 돌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파초에 대한 애정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⑤ 앞집 사람과의 의견 대립을 통해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2 주름 안에 누웠지만 파초가 빗방울을 통기는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린다고 하였다. 즉, 가슴에 비가 뿌린다는 말은 파초에 비 맞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3 파초는 이미 다 자라 내년엔 죽게 될 것이므로 주변의 부러움을 계속하고 싶으면 파초를 팔고 새로운 화초를 심어야 할 것이다.

4 글쓴이는 자신의 파초가 너무 작고 더디 자라서 이웃집의 큰 파초를 사와서 키웠다. 또한 파초를 키우는 과정에서 쏟아부은 애정도 파초를 빨리 키워 즐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정보다 절정이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 5 처마에 뽕을 달면 비가 올 때 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뜰에 있는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007

계_김용준

034-035쪽

키포인트 체크 계, 풍자, 한시

- 1 ④ 2 ⑤ 3 ② 4 작은 이익을 다투다가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인간의 모습

- 1 글쓴이가 계를 그리기 수월하다고 한 것은 그만큼 계가 단순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글쓴이는 정소남의 일화를 통해 예술은 작가의 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는 자신의 예술관을 밝히고 있다.
 ②, ③ 글쓴이가 운우당의 시를 인용한 것은 창자가 없어 단장의 비애를 느끼지 못하는 계의 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글쓴이는 계는 '무장 공자'로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데,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라며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계를,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좋은 화제라고 한 점으로 보아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①은 예술 작품은 작가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글쓴이의 예술관을 보여 준다. 반면 <보기>는 글씨와 그림의 숨씨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
- 3 글쓴이는 계가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는 내용을 담은 운우당의 시구가 자신에게 큰 울림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애의 주인공을 글쓴이 자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으로까지 확장하여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상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한 세태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입장에서 ②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이에 순응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4 [B]에서 글쓴이는 계 낚시를 할 때 수십 마리의 계가 미끼에 영겨 붙어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상쟁을 하다가 모두 어부에게 잡히는 모습을 묘사하며 작은 이익을 서로 다투다가 모두 위험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008

무궁화_이양하

036-037쪽

키포인트 체크 무궁화, 긍정, 인용

- 1 ④ 2 ② 3 ④ 4 글쓴이의 평가: 무궁화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지닌 꽃이다. / 이유: 피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끊임없이 새 꽃송이를 피워 내기 때문이다.

- 1 글쓴이는 무궁화와 관련된 경험과 여러 해 동안 무궁화를 관찰하여 얻은 사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성보다는 이성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 2 글쓴이는 무궁화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환멸'을 느꼈고, 오랫동안의 관찰을 통해 무궁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결국 무궁화의 미덕을 '인정'하게 되었다.
- 3 글쓴이의 친구는 우리나라의 국화가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자신이 고향에서 흔히 보던 무강나무가 국화인 무궁화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고 있다.
- 4 [A]에서 글쓴이는 무궁화를 겸손하지만 자신이 없지는 않은 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에는 무궁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무궁화는 피기 시작하면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그날 밤사이에서들지만, 다음 날 새 송이가 잇대어 피고 하는 것이 시월에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009

측상락_윤오영

038-039쪽

키포인트 체크 화장실, 초조, 과장, 비유

- 1 ③ 2 ① 3 ② 4 ⑤ 5 화장실에서 누리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1 이 글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를 독창적인 시선으로 포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글쓴이는 용변 보는 행위를 사람과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용변 보는 행위를 '수륙 병진으로 배출을 하건',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등의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 2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이런 무관심과 태만에 대해서도 아무도 문책하는 사람은 없다.'에서 글쓴이는 용변을 볼 때 세상일을 잊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에 대해 태만이라고 했을 뿐 평소 자신의 태도를 태만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 3 ⑥에서 '한 복지'는 글쓴이가 불안하고 초조한 현대인의 생태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화장실을 가리킨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④는 '숨 가쁜 세상'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고요하고 여유로운 삶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장실에서 용변하는 시간을 자유가 확보되고 주권이 부여되는 우주에서의 시간으로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용변을 볼 때의 마음 상태를 '들뜬 기운이 가라앉으며 평온한 회황 시대로 돌아온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은거 생활을 했던 '소부'와 '허유'에 대한 고사(故事)를 통해 세상과 절연된 화장실의 공간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4 '무슨 불안이 문밖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것만 같고'와 뒤에 이어지는 '이 초조한 심경' 등을 고려할 때,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인 '좌불안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③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를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을 이르는 말.
 ④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외계에서 수소탄이 터지고 태양이 물구나무를 서는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글쓴이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제시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개의하지 않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10 **은전 한 낚** _ 파천득

040~041쪽

키포인트 체크 은전, 객관적, 여운

1 ① 2 ③ 3 ④ 4 삶의 간절한 소망 5 ⑥: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 ⑥: 인간의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

- 1 이 글의 글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늙은 거지의 행위를 관찰한 그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 인물의 심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2 늙은 거지는 한 푼 한 푼 얻은 동전을 모아 각전 한 닢으로 바꾸고, 다시 각전을 모아 은전 한 닢을 갖게 되었다. '티끌 모아 태산'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3 늙은 거지가 은전을 들여다보는 것은 간절하게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어 기뻐면서도 그것이 쉽사리 믿기지 않아 자꾸 확인하고 싶은 심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4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다는 거지의 말을 통해 그에게 있어 '은전 한 닢'은 삶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 이 글은 글쓴이의 설명이나 소감 없이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습니다.'라는 거지의 대답만을 제시하여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한다. '은전 한 닢'을 얻기 위한 거지의 갖은 노력에 주목하면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반면 '은전 한 닢'을 맹목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거지의 모습에 주목하면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이라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011 **뒤지가 진적** _ 이희승

042~043쪽

키포인트 체크 감옥살이, 해학, 사실

1 ⑤ 2 ② 3 ① 4 읽을거리에 목말라 있던 글쓴이와 감옥 동료들에게는 뒤지라 할지라도 글이 적혀 있으면 진귀한 책과 같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1 경찰들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세상의 일들을 아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를 뒤지로 주지 않았고, 신문을 뒤지로 쓰더라도 읽을거리가 없어지도록 잘게 찢어서 넣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글쓴이와 감방 동료들은 《경무회보》라도 많이 입수하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경무회보》를 일본 경찰계의 기관지라 읽지 않았다는 ⑤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 2 ①은 뒤지를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글쓴이와 동료들은 뒤지를 많이 얻어 거기에 써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다.
- 3 ④는 간수 몰래 뒤지를 얻으려다가 당하는 봉변을 가리킨다. ⑥는 뒤지를 읽다가 간수들에게 봉변을 당해도 글을 읽는 본능을 숨길 수 없다는 것으로, 뒤지에 있는 글 읽기를 단념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 4 뒤지는 글쓴이와 동료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고, 지루한 수감 생활을 견디게 해 주며, 글쓴이와 동료들이 글을 읽고 싶어 하는 욕망을 충족해 준다. 그러므로 뒤지는 '단순히 똥을 누고 밭을 씻어 내는 종이'가 아니라 진귀한 책(진적)과 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다.

012 **산정무한** _ 정비석

044~045쪽

키포인트 체크 금강산, 감정, 대구법

1 ③ 2 ⑤ 3 ① 4 ④ 5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물도 마치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

- 1 마의 태자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마의 태자와 관련된 내용이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 건너뿔 정도로 가깝다'에서 망군대에서 바라본 봉우리의 모습을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장안봉에서 마의 태자 무덤에 이르는 여정을 시간적 순서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④ '내·외·해 삼금강을 ~ 더 바랄 것은 무엇이라.'에서 '-려'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비로봉 최고점에 오른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한 문장을 길고 장황하게 표현한 만연체를 활용하여 여정과 감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 (다)에서 글쓴이는 비로봉 최고점에 올랐으나 보이는 것은 그저 운해 뿐, 삼금강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삼금강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① (나)에 비와 우박이 몰아치던 날씨가 삼시간에 잠든 양같이 운순해졌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가)를 통해 망군대를 오르기 위해서는 삼백 단의 가파른 사닥다리를 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 ③ (라)에서 마의 태자의 무덤은 철책도 상석도 없고 오랜 세월 동안의 바람과 비로 인해 비문조차 읽을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라)의 '비로봉 동쪽은 ~ 자작나무의 수해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 글쓴이는 비로봉 최고점에 올라 내·외·해 삼금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방을 조망했으나, 운해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자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곧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 비로봉 최고점에 오른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4 ①은 직유법을 사용하여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철보단장 같다', '굽어보는 단풍'은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라고 표현하고, 앞뒤 구절을 대구법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있다. ②는 잠잠해진 날씨가 '잠든 양같이'라고 직유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표현이다. ③은 '자작나무'를 '수중 공주'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①~④ 모두

정답과 해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대구법에 대한 설명으로 ㉠에만 해당한다. ②는 영탄법, ③은 의인법, ⑤는 설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 5 무심한 '구름'도 여기(마의 태자의 무덤가)에서는 잠시 머무는 것 같고, 소복을 입은 '백화'가 슬프게 서 있으며, '초저녁달'이 눈물을 머금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마의 태자의 무덤가에서 글쓴이가 느낀 애상감과 추모의 마음을 자연물에 투영한 것이다.

013 특급품 김소운 046~047쪽

키포인트 체크 바둑, 유연, 유추

1 ㉠ 2 ㉢ 3 ㉤ 4 균열을 제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하는 유연성

- 1 이 글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자 한 것이지, 현실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2 이 글은 일급품 비자반이 균열을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특급품으로 거듭나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시련을 잘 극복하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이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마음을 받게 된다는 말. ②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
- 3 이 글에서 특급품 비자반은 갈라진 상처를 제힘으로 이겨 낸 존재이다. 이를 인간의 삶에 결부한다면 과실이나 시련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의 '장 발장' 역시 과실과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 인물이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형'은 한순간의 오해 때문에 인생을 괴로움 속에 보내는 인물이다. ② '만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다짐하는 인물이다. ③ '산티아고'는 시련에 좌절하지 않는 인물이다. ④ '철호'는 거듭된 고통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물이다.
- 4 특급품 비자반의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은 갈라진 반면이 다시 유착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비자반의 유연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014 수필 피천득 048~049쪽

키포인트 체크 수필, 비유

1 ㉤ 2 ㉤ 3 ㉣ 4 ㉣ 5 수필은 글쓴이 자신을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이다.

- 1 이 글은 수필의 성격, 재료, 형식 등 수필의 특성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수필이다.
- 2 글쓴이는 수필은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라고 하였고,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 듯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글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필을 쓰는 데 따르는 글쓴이의 고뇌와 관련된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3 이 글은 단순히 수필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정서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수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수필로 쓴 수필론으로,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이 수필 문학에 대한 이론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③ 글쓴이는 수필을 청자연적 등에 비유하여 개성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여 수필을 쓰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 4 ㉠, ㉡, ㉢, ㉤은 수필 자체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상들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수필은 '청춘의 글'이 아니라 '서른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 즉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글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수필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 5 이 글에서 글쓴이는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라고 하였다. <보기>의 글쓴이도 수필은 자신의 삶을 통한 의미와 가치를 최상으로 높이는 도구이며 수필을 쓰려면 무엇보다 겸허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의 글쓴이 모두 수필을 자신을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5 참새 윤오영 050~051쪽

키포인트 체크 참새, 비판, 회고(회상)

1 ㉣ 2 ㉣ 3 ㉤ 4 ㉣ 5 참새가 없어질 정도로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 제시된 부분에는 유사한 대상 간의 공통점을 분석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중략 부분에서 참새가 진달래꽃과 같이 우리와 친근한 존재임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를 대상 간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일반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과학의 진보를 바라기보다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밀려 사라져 가는 옛것(참새)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라는 구절이나 참새를 한집의 한 식구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자연의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② <구운몽>의 내용을 인용하여 고전에 대한 교양을 드러내고 있다.

③ 글쓴이가 작고 귀엽고 조출한 참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참새 소리 때문에 상념에 빠지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3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참새에 대한 회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회고적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지난 삶에 대한 참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절대자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고 있다.

③ 결연한 삶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4 글쓴이는 예전부터 참새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참새의 가치를 몰랐던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5 글쓴이는 참새를 한 식구처럼 여겼던 과거와 달리 참새가 없어질 정도로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현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16 설해(雪害) _ 범정

052-053쪽

키포인트 체크 눈, 부드러움, 대립

1④ 2⑤ 3① 4③ 5 설해(雪害)를 입은 나무, 눈에 의해 꺾인 나무

1 이 글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망나니 학생의 일화, 사뻐히 내려앉은 눈에 의해 꺾인 나무의 일화, 부처님의 자비로 귀의한 살인귀 앙굴리말라의 일화 등을 제시하여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꺾는다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ㄴ). 또한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에서 설해를 입어 꺾인 나무들이 많은 산의 쓸쓸한 풍경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ㄹ).

2 ㉠은 거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므로,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음을 의미하는 ⑤의 '백절불굴(百折不屈)'과 뜻이 통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를 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의미함.

②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차기 짝이 없음.'을 의미함.

③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거나 속은 곧고 굳셈.'을 의미함.

④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3 '정'은 강함을, '물결'은 부드러움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단어는 ①의 '훈계'와 '자비'이다.

4 이 글은 훈계보다는 다사로움(시중 들기)이, 강한 비바람보다는 부드러운 눈이, 위엄이나 권위보다는 자비가 강함을 말하고 있다.

5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는 아름답거나 나무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17 비닐우산 _ 정진권

054-055쪽

키포인트 체크 비닐우산, 효용성, 역설

1② 2④ 3② 4① 5 값싼 인생을 살면서 부실한 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이 비닐우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1 이 글은 비닐우산에 대한 개성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비닐우산의 효용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비닐우산의 장점이 여러 가지로 서술되어 있다. 싼값에 비를 피할 수 있고 어디 놓고 봐도 섭섭하지 않다는 점, 빗방울과 빗소리가 만들어 내는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우산이 뒤집혔을 때에는 즐거운 짜증과 일상의 변화를 맞볼 수 있다는 점, 비닐우산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③ 비닐우산을 싸고 볼품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갖춘 것, 아름다운 효용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개성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④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볼품없고 한 군데도 탄탄한 데가 없지만 아름다운 효용성이 있는 비닐우산과 글쓴이 자신이 비슷한 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⑤ '좀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생각한다. ~ 살 수 없는 체험일 것이다.'에서 비닐우산과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되고 있다.

2 '좀 오래된 이야기 하나'는 볼썽 비닐우산 속으로 뛰어들어 온 어린 소녀와 만난 글쓴이의 경험담이다. 이를 '백 원으로선 살 수 없는 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글쓴이는 이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글쓴이는 이러한 경험을 삽입하여 비닐우산의 가치를 더욱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3 글쓴이는 비닐우산 속으로 뛰어들어 온 소녀가 떠나자 허전함을 느낀다. 비닐우산이 그 허전함을 달래 주거나 채워 준 것은 아니다.

4 글쓴이가 비닐우산과 자신의 삶과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틀어보기 ② 볼품없는 비닐우산을 개성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있으므로,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 대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값싸고 보잘것없는 비닐우산에서 여러 효용성을 찾고 있으므로 하찮은 물건도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비닐우산과 글쓴이 자신의 삶과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부분에서 대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비닐우산과 관련된 생활의 일면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를 비닐우산의 장점과 관련짓고 있다. 경제적 편이성, 예술성, 뜻밖의 즐거움, 소중한 추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닐우산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5 글쓴이는, 볼품없고 한 군데도 탄탄한 데가 없지만 아름다운 효용성을 지닌 비닐우산과, 값싼 인생을 살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듯 부실하지만 그런 몸으로나마 아이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찬비를 가려 주려고 베투대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018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_ 신영복 056~057쪽

키포인트 체크 소나무, 소비, 경쟁, 대조

1 ⑤ 2 ⑤ 3 ⑤ 4 인간이 문명의 폭력을 휘두르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는다면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

- 이 글은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소비하는 문명의 폭력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의 합일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글쓴이가 '당신'에게 '~ 아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쓰는 편지글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 ② 제한된 공간에서도 충만한 삶을 누리는 소나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현대인의 이기심, 비정함, 폭력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
 - ③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한 소나무와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글쓴이, 즉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며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
 - ④ '소방리의 술솥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등에 비유법이 쓰였다. 또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생할 수 있다는 희망과 저력을 상징하는 '술방울',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쇠' 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소나무'가 몇백 년 동안 묵묵히 풍상을 겪어 내는 존재라면, '소나무와 같은 사람'은 소나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명의 폭력성을 묵묵히 견디어 내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술방울'은 소생할 수 있는 저력과 희망을 상징한다. ⑤의 '푸른 별'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므로 '술방울'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
 - ☞ 오답 틀어보기 ③ '젊은 산맥'은 화자의 다리를 비유한 표현으로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이미지를 지닌다.
 - ④ '저문 들길'은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 자루 없는 쇠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문명의 폭력을 휘두르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문명의 폭력은 결코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뜻이다.

019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_ 신영복 058~059쪽

키포인트 체크 출발, 본질, 경험

1 ① 2 ④ 3 ④ 4 ④ 5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 글쓴이는 노인 목수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삶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글쓴이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대학의 강의실'과 '공장의 작업대'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①, ②, ③, ⑤에서 '회괘, 이론, 탁(度), 글쓴이의 집 그리는 순서'는 본

질이 아닌 것을, '물건, 실천, 족(足), 목수의 집 그리는 순서'는 본질인 것과 관련되어 모두 대조 관계를 이룬다.

- (다)에서 글쓴이는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힘든 삶을 사는 젊은이에게 위로의 말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은 자신의 발보다 그것을 본뜬 탁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본질이 아닌 '탁'을 본질인 '족'보다 중시하는 것이므로 사물의 경중·선후·원급 따위가 서로 뒤바뀔을 이르는 말인 '주객전도(主客顛倒)'로 비판할 수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②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말.
 - ⑤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
- (가)에서 글쓴이는 실제 집을 짓는 순서대로 집을 그리는 노인 목수를 보고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020 젊은 아버지의 추억_ 성석제 060~061쪽

키포인트 체크 아버지, 반성, 한자

1 ⑤ 2 ③ 3 ④ 4 ② 5 ⑥: 자식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이끌어 줌. ⑥: 자식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함.

- 글쓴이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 보리라 생각한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 아버지도 자신과 같은 나이에 같은 문제로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천재인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⑤는 일치하지 않는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글쓴이는 사춘기적 증상을 겪으면서 '자존망대형(自尊妄大型) 조발성(早發性) 천재 증후군'이라는 자만심에 빠진다.
 - ② 글쓴이는 학교에서 배울 것도 없고 친구들도 유치하다며 아버지께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 ③ 아버지는 글쓴이를 홀로 남겨 둔 채 냇가로 내려간 후 한참 동안 오시지 않는데 이는 글쓴이에게 세상살이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 ④ 아버지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글쓴이의 말을 듣고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 이 글은 사춘기 시절 자만심에 빠졌던 글쓴이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잘못을 스스로 깨달았던 일화를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수필이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다른 일화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①은 글쓴이가 식구들에게 자신이 천재임을 알리기 위해 숙제를 열심

히 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며, 경어를 사용한 것을 가리킨다. 이는 글쓴이가 다른 아이와는 달리 자신은 성숙하고 뛰어난 천재임을 식구들에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다.

- 4 아버지는 자신의 정신 수준이 서른 살에 도달하여 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 일부러 아들을 홀로 남겨 둔다. 글쓴이가 무서워 떨 때 나타난 아버지가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냐는 물음을 하는 데서 ㉔와 같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 5 ㉔ '나', 글쓴이는 자식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㉕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와 같이 자식을 마음으로 감복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한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021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_ 나희덕 062-063쪽

키포인트 체크 가시, 고통, 비유

1㉓ 2㉓ 3㉓ 4 고통은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사람을 겸허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 1 다리가 불편하다는 가시로 인해 그림을 그려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은 로트레크의 이야기를 통해 글쓴이는 가시가 존재를 높이 들어 올리는 힘이 되기도 하므로,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2 글쓴이는 가시를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하며 가시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가시를 뽑아 버리고자 하는 <보기>의 '그'에게 내성적인 성격을 잘 다스려 나가라고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답 풀이보기 ①, ② <보기>의 '그'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잘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따라서 내성적인 성격을 그의 가시로 볼 수 있다.
 - ③, ④ '그'는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므로 가시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뽑아 버리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 3 ㉔은 힘든 삶 속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인생의 가치를 의미하고, ㉕~㉔은 인간의 삶 속에서 자라는 가시의 예에 해당한다.
- 4 글쓴이는 삶의 고통(가시)이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며, 고통이 없었더라면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너무 아름답거나 부유하거나 강하거나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시는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 주는 선물이라고 하였다.

022 반 통의 물_ 나희덕 064-065쪽

키포인트 체크 밭, 생명, 아름다운, 병렬

1 ① 2 ③ 3 ④ 4 ① 5 불편한 몸으로 텃밭의 살아 있는 것들에 물을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 1 이 글에서는 당근을 수확 주었던 경험을 통해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과,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은 것을 서술하고 있다.
- 2 글쓴이는 밭에 뿌린 씨를 새들이 먹고 간 작년의 농사 경험을 통해 농부들이 넉넉하게 씨를 뿌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삶의 교훈을 얻게 된다.
- 3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는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를 통해 '적절한 거리'가 식물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 4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에서 짐작할 수 있듯,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절뚝거리면서 힘겹게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이 '살아 있는 것들', 곧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5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를 통해 알 수 있다. 글쓴이는 불편한 몸이지만 텃밭의 생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물을 흘린 '그 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길'로 생각하는 것이다.

023 존재의 테이블_ 나희덕 066-067쪽

키포인트 체크 테이블, 행복함, 거울

1 ③ 2 ④ 3 ④ 4 ② 5 (1) 자신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 거울 잘 비추어 주는 거울 (2) 힘든 일이 닥칠수록 더 작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러주는 거울

- 1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사물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 글쓴이의 경험을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다.
- 2 제시문에는 세상이 바슬라르를 무시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으며, 세상을 용서해 주는 바슬라르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 3 라디오는 글쓴이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㉔은 글쓴이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제시문에서 외로움을 달래 준 것은 ㉔이 아니라, 바슬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이다.
- 4 ㉕은 글쓴이가 인도 토산품점에서 본 테이블을 자신의 '존재의 테이블'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을 뜻한다.
 - ☞오답 풀이보기 ① ㉔은 좀 더 알고자 하는 지적 욕망과 갈망을 뜻한다.
 - ③ ㉔은 존재의 테이블에 자주 앉지 못한 글쓴이의 씁쓸함과 후회로 인해 존재의 테이블이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㉔은 존재의 테이블이 그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평범하고 허찮은 물건처럼 취급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⑤㉔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존재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5 글쓴이는 존재의 테이블을 '거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거울'에 빗대어 표현한 존재의 테이블은 첫째, 글쓴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잘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며, 둘째,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작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넉넉히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024 순후와 질박함에 대하여_공선옥 068-069쪽

키포인트 체크 시골, 비판적, 대화

1㉓ 2㉓ 3㉓ 4㉓ 5 순후와 질박함을 지닌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다.

- 1 이 글은 '대답한다', '묻는다', '말한다' 등과 같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재 일어난 사건처럼 서술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2 글쓴이는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에게서 따뜻한 인정을 느끼며 자신이 힘들고 지친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글쓴이는 정성 들여서 집안일을 하며 스스로 자식들에게 정신적 유투피아가 되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㉓이 적절하다.
- 3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육체가 너무 건장한 사람,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무형의 저항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④는 모두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낮선 손님도 스스럼없이 받아 주는 사회'는 글쓴이가 시골 할머니에게서 느낀 순후와 질박함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에 해당한다.
- 4 사립문은 글쓴이가 방문한 할머니의 집 문으로, 낮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할머니의 인정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낮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띠며 반기는 모습에서 할머니의 인정을 느낄 수 있다.
 ② 낮선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집 구경을 허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할머니의 인정을 느낄 수 있다.
 ④ 집에 오자마자 시원한 냉수를 건네는 것은 글쓴이가 목이 마를 것을 예상한 할머니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⑤ 글쓴이가 인사치레로 꺼낸 막걸리란 말에 집에 있는 술을 대접하려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다.
- 5 글쓴이는 자신이 지치고 힘든 이유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깨닫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고향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집안일을 하며 어떻게 늙어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신이 시골 마을에서 겪은 할머니의 모습처럼 '순후'와 '질박함'을 잃지 않은 노년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5 미안합니다_장영희 070-071쪽

키포인트 체크 미안합니다, 인정, 배려, 대비

1① 2⑤ 3② 4 '미안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5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사과를 한다

- 1 이 글은 미안하다고 해야 할 상황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글쓴이의 일화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아버지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대비되는 두 가지 일화를 통해 '미안하다'는 말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2 이 글에서 글쓴이가 아버지를 나무라는 경비원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 글쓴이는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이 손까지 흔들며 배웅해 주는 모습을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경비원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② 글쓴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영수에게 사과할 것을 결심하였다.
 ③, ④ 글쓴이는 아버지와 경비원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갈등 해소에 큰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 3 (가)는 글쓴이가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을 피할 구실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영수의 문제를 몰랐다는 것(㉔), 선생 체면에 학생한테 사과하는 일은 곤란하다는 것(㉓), 영수가 그때 상황을 잊었을 수도 있으니 굳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는 것(㉔)이 그것이다.
- 4 ㉔는 글쓴이의 아버지와 경비원 사이의 갈등과 문제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 5 이 글에서 아버지는 차를 현관 근처에 주차한 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비원에게 '미안합니다'를 반복하였고, 경비원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몸이 불편한 글쓴이인 것을 알고 "아이구,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사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26 하필이면_장영희 072-073쪽

키포인트 체크 하필이면, 긍정, 대조

1⑤ 2⑤ 3② 4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인식하고) 있다.

- 1 이 글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글쓴이가 어린 조카가 '하필이면'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깨달은 바를 쓴 글이다.

② 이 글에서는 '하필이면'이라는 말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 의미와 글쓴이가 새롭게 인식한 긍정적 의미를 함께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③, ④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경우의 상황과 긍정적으로 인식했을 경우의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이 두 사례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화자 모두 슬픔을 겪어야 행복이 배가 된다는 발상은 이끌어 내기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의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이므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보기>의 화자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생각을 바꾸니 희망이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조카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④ <보기>의 화자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여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 ㉠은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상황으로, 글쓴이가 '하필이면'을 부정적 상황에서 쓴 경우이고, ㉡는 긍정적 상황에서 쓴 경우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③ 이 글에서 글쓴이는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하필이면'에 해당하는 상황을 먼저 제시한 뒤, 태생적·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하필이면'에 해당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두 상황은 모두 '하필이면'을 한심하고 슬픈 말로 생각하고 부정적 상황에서 쓴 경우이다. 따라서 ㉡를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 태생적·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하필이면'이라고 서술한 ①, ③은 적절하지 않다.

4 ㉠은 글쓴이가 조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성찰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깨닫게 되었음을 밝히는 부분이다.

인 느낌 대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④ 글쓴이는 여행지에서 느낀 점들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사색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⑤ 네 번째 문단의 '이 엽서를 띄웁니다'에서 이 글이 엽서의 형식을 빌리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2 ① '파괴와 약탈'은 과거 메메트 2세가 금지했던 것이므로 '이스탄불'을 설명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3 글쓴이는 소피아 성당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이스탄불의 관용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①에서처럼 여러 유적을 놓고 대립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글쓴이가 언급하고 있는 두 개의 장벽은 우리의 사고를 가로막는 정신적 장벽을 의미한다. 따라서 ②와 같이 견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제시된 지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이스탄불의 지리적 특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성은 이스탄불이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접하면서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게 하였다.

028 피혁삼우_오병훈 076-077쪽

키포인트 체크 가족, 허리띠, 의인화, 3

1 ③ 2 ② 3 ④ 4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1 이 글은 허리띠, 지갑 등 생활 주변의 사물을 의인화하여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일상을 흥미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2 (나)에서 주인이 사진을 분실했을 때 무척 아쉬워하고 또 이를 찾았을 때 눈물겨워하는 것에서 주인이 사진을 무척 아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갑(㉠)이 사진을 부러워하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서글퍼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주인의 총애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지낸다'고 한 것에서 지갑이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지냄을 알 수 있다.

④ '매일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니 긴장의 연속', '힘이 부치는 느낌이다.' 등에서 허리띠의 고단함을 알 수 있지만, 지갑이 자신의 일이 힘겹다고 불평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허리띠는 주인의 허리를 껴안고 있는 일을, 지갑은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보듬고 다니는 일을 한다.

3 ㉠은 주인이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을 잃어버렸던 상황을 일컫는다. 주인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지갑의 두려움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4 주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여 어머니 사진을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보기>에서 화자가 밥상 위의 '은수저'를 보고 죽은 '애기'를 애 통하게 그리워하는 것을 통해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은수저'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027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_신영복 074-075쪽

키포인트 체크 관용, 장벽, 비유

1 ③ 2 ① 3 ① 4 ② 5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양쪽의 문화가 서로 비슷하게 수용되고 공존하기 쉬웠다.

1 이 글에서는 관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여정보다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등에 대한 견문과 감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이 글은 경어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함으로써 단정적이고 일방적

029

소년 시절의 맛 성석제

078-079쪽

키포인트 체크 라면, 소년 시절(어린 시절), 시간

1 ④ 2 ② 3 ③ 4 ⑤ 5 주변 환경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6 꿈과 희망을 지닌 순수한 시절을 지나 어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1 이 글에서 글쓴이는 라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회상하며 꿈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순수했던 과거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현재의 상황이 대비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을 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가)~(라)에 나타난 '라면'의 공통점은 글쓴이의 추억과 관련된 소재라는 점이다.

3 글쓴이가 혼련소에서 라면을 얻어먹을 목적으로 식당 주방장의 연애편지를 대신 써 주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4 도서관에 남아 있는 원래 목적은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글쓴이는 분식 집에서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기 위해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기 위해 도서관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를 지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주인과 손님이 서로 바뀌었다는 의미의 '주객전도(主客顛倒)'이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된다는 말.

②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음을 이르는 말.

③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④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본다는 말.

5 이 글의 글쓴이는 잃어버린 라면의 맛을 찾기 위해 그 시절의 환경을 재현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자장면의 맛이 나기 위한 장소의 구체적인 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글쓴이 모두 주변 환경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마)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라면이 아닌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라면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순수한 꿈과 희망을 지닌 시절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30

성난 풀잎 이문구

080-081쪽

키포인트 체크 풀둑, 인간, 인용

1 ⑤ 2 ③ 3 ① 4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의미함.

1 이 글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드러나 있지만,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보기 ① '~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 무관한 것이 아니

었던가.' 등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잡풀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풀둑이 오르기 전 잡풀은 필요 없으므로 뽑고 베어 내야 한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보여 주고 있지만, 풀둑이 오른 후 잡풀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타주의적 사고를 보여 주고 있다.

③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에서 열거법과 연쇄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노자의 말,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연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은 잡풀의 입장에서 생각한 말로,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잡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인위적으로 해하려는 대상에게 반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보기> 시에서 '새'는 사람의 손에 의해 파괴된 자연을 상징한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반성하고, 이타주의적 사고, 생명 존중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이 충고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4 글쓴이는 잡풀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잡풀을 뽑고 베어 내다가 다리에 풀둑이 올랐다. 즉,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을 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031

꽃 출석부 1 박완서

082-083쪽

키포인트 체크 꽃, 이름, 출석부, 설렘

1 ③ 2 ④ 3 ② 4 ① 5 백 가지가 넘는 꽃을 보는 즐거움을 뜻한다.

1 글쓴이는 복수초를 비롯해 자신의 집 마당에 피는 여러 꽃들의 이름과 피는 시기, 특성 등을 잘 알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꽃들을 섬세하게 관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 글쓴이는 '작년 가을'에는 복수초의 볼품없는 겉모습 때문에 눈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복수초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고 여긴다. '올해 3월'에는 복수초가 황량한 마당과 어울리지 않게 샛노란 꽃을 피운 것을 생똥맞다고 느끼며 그 모습을 어색해한다. '큰 눈이 온 뒤'에는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싱싱하게 피어 있는 복수초를 보고 '감탄'하고 있다.

3 꽃 출석부의 출석 번호는 꽃이 피는 순서에 따라 매겨진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출석부에 있는 꽃들의 출석 번호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은 글쓴이가 꽃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이라는 뜻의 '애지중지(愛之重之)'가 가장 적절하다.

- ②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의미함.
- ③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의미함.
- ④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의미함.
- ⑤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사치'란 분수에 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한다. 문맥적 의미로 볼 때 여기서 '사치'는 글쓴이가 백 가지가 넘는 꽃을 보는 즐거움을 뜻한다.

032 **앓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_ 윤구병 **084-085쪽**

키포인트 체크 문화유산, 단절, 대조

1④ 2④ 3② 4마을 어른이나 이웃들은 앓과 힘의 원천으로,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조상들이 농가의 뜰에 다른 나무보다 감나무를 많이 심은 것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요깃거리이기 때문이다. 감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우리나라의 토양에 더 적합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보기>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관심사가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유산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자신의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생존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문화유산을 통해 심미안을 기르려고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 ①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를 통해 소박한 삶을 추구함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③ 이 글 전체에서 글쓴이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이어받아 지켜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 부분에서 글쓴이는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스마트폰'은 '기르는 문화'가 아니라, '만드는 문화'에 해당한다. '한옥, 김치, 온돌, 한복' 등은 모두 '기르는 문화'에 해당한다.

4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앓과 힘의 원천으로 보고 있고,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은 우리 문화를 전승하고 있으므로,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033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 보라** _ 장영희 **086-087쪽**

키포인트 체크 제목, 편견, 낙관, 인용

1② 2④ 3③ 4④ 5 인간으로 태어난 것,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기본적인 지력과 양심을 타고난 것

1 글쓴이는 직접 체험한 사건들이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①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까닭을 네 가지 열거하고 있다.

- ③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판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 보라.'라는 영어 속담을 인용하여 누구의 삶에든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간헐 말들이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 자유 없이 지내는 말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2 글쓴이는 1급 신체 장애인이고 암 투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누리는 축복들을 헤아리며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3 글쓴이는 인간으로서, 문학 선생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기자는 글쓴이가 지닌 장에 초점을 맞추어 제목을 정하였다.

4 ㉠은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속담으로, 글쓴이가 1급 신체 장애인이고 암 투병을 하지만 자신이 가진 다른 능력으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5 글쓴이는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 보라.'라는 영어 속담을 인용한 뒤 자신의 삶에도 축복이 있다며, 자신이 삶에서 누리는 축복을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034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_ 김난도 **088-089쪽**

키포인트 체크 꽃, 성공, 조언, 지문자답

1② 2③ 3③: 늦게 성공한 사람 ⑥: 빨리 성공한 사람 4④ 5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

1 이 글은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이 쓰였지만,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① 꽃의 속성에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매화가 세상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 '장미가 마음이 급해 3월에 피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춘삼월 찬이슬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등에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그러지 말라.' 등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 ⑤ '늦게 성공한 사람'을 '국화'에, '빨리 성공한 사람'을 '매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 이 글에서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일찍'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크게 성공하려는 사람'은 글쓴이가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조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 '그대의 전성기는 아직 멀리 있다.'라고 했으므로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기에 적절하다.

정답과 해설

② '잠깐의 뒤처짐에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했으므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 열등감은 남과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남과 비교를 잘하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기에 적절하다.

④ '잠정적인 실패에 좌절하여'라고 했으므로 '실패하여 낙심을 잘하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기에 적절하다.

⑤ '청춘들은 대부분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라고 했으므로 '성급하게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기에 적절하다.

3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므로 '늦게 성공한 사람'을 비유한 것이고, '매화'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므로 '빨리 성공한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4 글쓴이는 선인들의 생각, 즉 '소년등과를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을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가 다르므로 선인들의 생각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5 이 글에서는 다른 사람이 일찍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전성기를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장미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여 좇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살릴 것을 조언하고 있다.

035 한 그루 나무처럼 윤대녕 090~091쪽

키포인트 체크 참나무, 마음, 성찰(반성)

1 ③ 2 ③ 3 ⑤ 4 참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던 글쓴이의 염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약수터 옆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 준 것을 계기로 친구를 만나러 가듯 나무와 교감을 나누게 되었으며 겨울이 되어 무성했던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눈을 맞고 기다려 주는 참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일상적 경험인 산행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나, 눈을 맞고 서 있는 참나무에 대한 연민은 나타나지 않는다.

2 글쓴이는 여름에 무성했던 나뭇잎이 겨울이 되어 다 떨어졌으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눈을 맞고 기다려 주는 참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그간의 삶을 반성하고 겉모습은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치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 [E]에서 글쓴이는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므로, 나무를 본받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A]에서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과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를 통해 글쓴이가 연민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글쓴이는 '장도리를 챙겨 놓고 약수터로 올라'가 나무의 못을 빼내고 난 후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글쓴이는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글쓴이는 '혈벗은 나무'를 보며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우주 나무'는 우리의 옛 신화에서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나무를 가리킨다. 글쓴이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난 저녁, 산에 올라 참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다. 즉, 글쓴이는 자신의 염원을 참나무가 하늘에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해서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게 된 것이다.

036 나와 남 장영희 092~093쪽

키포인트 체크 나, 남, 관계, 신화

1 ⑤ 2 ④ 3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리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됨. 4 ②

1 이 글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2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제각각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나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3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4 <보기>와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 글이 '나'와 '남'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데 반해, <보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37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최인호 094~095쪽

키포인트 체크 개구리, 경탄, 시

1 ⑤ 2 ③ 3 ② 4 독자들에게 사색의 기회를 부여한다.

1 글쓴이는 자신의 집 정원에서 발견한 개구리를 보고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고 태어났는지에 대하여 사색을 시작한다. 이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살아 숨 쉬는 것들에 대한 사색과 관찰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신비로운 섭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이고 있다.

2 ㉠, ㉡, ㉢, ㉣가 각각의 생명이라면, ㉤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3 <보기>에서 글쓴이는 모과나무에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들을 세심하게 지켜보며, 생명의 근원을 궁금해하고 있다. 이를 보아 관찰력이 있고 사색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4 글의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주는 동시에 독자들에게 주제에 대해 사색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038 풀 비린내에 대하여_ 나희덕

096~097쪽

키포인트 체크 자동차, 의존도, 인공

1 ① 2 ② 3 ③ 4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 1 글쓴이는 자동차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풀 비린내 사건을 경험한 뒤 자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문명의 이기와 생태 문제에 관해 성찰하기 시작한다.
- 2 글쓴이가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볼 때,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안함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손을 씻고 또 씻’는 글쓴이의 행위는 무수한 풀벌레를 죽인 행동에 대한 글쓴이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풀벌레가 죽은 일을 ‘살상의 경험’으로 표현한 것은 그 사건이 글쓴이에게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 ④ ‘이슬이슬한 줄타기’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빚낸 표현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글쓴이가 자동차를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글쓴이의 ‘원죄 의식’은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생태적 사유’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된 생각을 추측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의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 4 자동차가 주된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져 가던 글쓴이는 고속 도로를 달린 다음 날 아침 차체에 엉겨 붙은 풀벌레의 잔해를 목격할 후 거대한 범죄를 저지른 듯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를 계기로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정리하여, 당장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자동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결심하게 된다.

039 오해_ 박완서

098~099쪽

키포인트 체크 고양이, 오해, 반성

1 ③ 2 ⑤ 3 ② 4 ③ 5 고양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기보다는 자유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존재이다.

- 1 고양이 가족을 보고 감동하고 기뻐한 글쓴이에게 어미 고양이가 짝도 강렬한 적의를 보인 것이 극적인 반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2 글쓴이는 그동안 먹이를 주었던 고양이가 자신을 배신하고 강렬한 적의를 보인 것에 배신감을 느껴 허탈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양이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가 어처구니없어서 웃음이 난 것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글쓴이는 어미 고양이의 짝도 강렬한 적의에 기절할 뻔하게 놀랐다.
- ② 글쓴이는 고양이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끼고 있다.
- ③ 글쓴이는 뒷문 밖 뒷마루에 고양이가 새끼들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감사와 친애의 표시로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여 감동하였다.
- ④ 글쓴이는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쓰레기봉투를 꼭꼭 잘 여며서 집 앞에 내놓지만, 고양이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속상해한다.
- 3 고양이가 직접 쓰레기봉투를 뒤져 먹이를 찾아내는 것이 스릴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글쓴이가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내용이다. 글쓴이가 했던 오해는 고양이를 위하여 먹이를 따로 접시에 담아 내놓는 것을 고양이 좋아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 4 <보기>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로, 이 글에 적용해 보았을 때 글쓴이가 고양이에 대하여 오해하게 된 것도 자기중심적인 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글쓴이는 고양이 입장에서 인간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하는, 죽느니만도 못한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040 내리막길의 어려움_ 박완서

100~101쪽

키포인트 체크 내리막길, 인생, 품위, 역설

1 ① 2 ① 3 ③ 4 권력을 쥐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된다. 품위 있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

- 1 이 글은 등산과 하산이라는 경험을 통해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어렵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인생에 확대 적용하여,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품위 있게 내려오기 어려우므로 올라갈 때 힘을 다 써 버리지 말고 남겨 놓아야 한다는 교훈도 전달하고 있다.
- 2 ‘사람 사는 세상’은 숙부와 숙모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돕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숙부가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풀려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산행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숙부를 산 아래까지 데려다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숙모는 고마운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 3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어렵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제시되어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숙부 내외의 등산 이야기는 숙부 내외가 직접 겪은 경험으로 사실에 해당한다.

② 이 글은 숙부와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어렵다는 깨달음,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품위 있게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④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제한으로 당당하게 내려오려면 올라갈 때 힘을 다 써 버리지 말고 남겨 놓아야 한다며 내리막길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⑤ 글쓴이도 나이가 들어 숙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숙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4 ㉠을 통해 이 당시 전직 권력자들이 제대로 권력을 내려놓는 경우가 별로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의 내리막 길을 걸을 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041 우주와 사랑을 품은 요리, 볶음밥 _ 노명우 102~103쪽

키포인트 체크 자립, 어른, 볶음밥, 대조

1 ① 2 ④ 3 ④ 4 ④ 5 실패를 통해 완성해 간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1 이 글은 '볶음밥'이라는 일상적인 소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2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가는 십 대가 자립 요리를 시작하기 딱 적당한 나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요리를 십 대라면 누구나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서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3 실패를 통해 어떤 재료와 재료가 어울리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갓난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른이 스스로 해야 할 일 중에 스스로 요리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② 불고기볶음밥에 셀러리를 썰어 넣으면 평범한 불고기볶음밥이 '마법에서 풀려난 왕자님처럼'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한다고 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③, ⑤ 자립 요리의 조건 다섯 가지를 나열한 뒤, 볶음밥이 재료를 구하기도 쉽고 요리할 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 요리의 조건을 충족하는 요리라고 말하고 있다.

4 글쓴이는 볶음밥의 조리법과 조리 도구가 간단하며,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볶음밥을 조리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5 볶음밥을 만들다 보면 재료의 조합이 어울리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어떤 자료들이 서로 어울릴지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궁극의 요리법을 완성할 수 있다. 인간 역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여러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추게 된다. 즉, 볶음밥을 만드는 과정과 어른이 되는 과정은 실패를 통해 완성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042 책 속에 길이 있다 _ 이권우 104~105쪽

키포인트 체크 책 읽기, 길, 벗, 비유

1 ② 2 ㄱ, ㄹ, ㅁ 3 ② 4 ④ 5 책을 읽어야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1 글쓴이는 책과 관련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시작하여 책 읽기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오늘날에는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보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고(ㄱ), 무관한 정보를 엮어 유관한 정보를 만들고(ㅁ), 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해야(ㄹ)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3 책 읽기로 청소년기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은 정서적인 결핍에 대한 충족을 의미하지, 책 읽기가 경제적인 결핍을 충족해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과 벗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책을 가까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② 책을 읽지 않아도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③ 책을 읽으면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5 '길이'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길이 책 속에 있으므로 책을 읽어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043 과학자의 서재 _ 최재천 106~107쪽

키포인트 체크 이기적 유전자, 욕심, 최선, 솔직

1 ② 2 ② 3 ④ 4 좌절감,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는 '이기적 유전자'로 세상을 보니 학문과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인생관, 가치관 등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책을 읽은 이후 자신의 유전자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2 '일장춘몽(一場春夢)'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 성어는 '남가일몽(南柯一夢)'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의미함.

③ 중국의 황허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⑤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3 <보기>의 학생은 글쓴이처럼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글쓴이는 이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을 다치는 대로 읽고 그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욕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조언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4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직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되는 경험을 하고 황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에 만사가 시시해지고, 인간이 애쓰며 노력하는 것은 모두 허사라는 생각이 들어 좌절감까지 느끼게 된다.

044 **신생** 한기영 108~109쪽

키포인트 체크 병아리, 생명력, 인용, 비유
 1④ 2② 3자식을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한다. 4④

1 봄이 오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은 향토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환'은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병아리를 통해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병아리들을 거느린 어미 닭의 모습, 장닭이 벌레를 잡고 암탉과 병아리들을 부르는 모습이나 꽃닭의 껴병한 모습, 솔개가 감도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와 같이 글쓴이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고 있다.

③ '봄이 진군한다', '지구 한창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에서 봄을 의인화하여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의 일부를 인용하여 새로운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안주해 왔던 세계를 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글쓴이는 신생의 이미지로 봄 병아리를 떠올리고, 봄 병아리를 살피는 어미 닭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보인 태도를 성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라고 하였다.

③, ⑤ 글쓴이는 봄 병아리, 어린 새싹, 골목 안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등에서 신생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④ 글쓴이는 신생의 이미지로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다. 병아리가 앞에서 나오는 과정이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모두 생명력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글쓴이는 이에 <데미안>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외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3 위기 상황에서 열린 날개를 꺾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은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 <결빙의 아버지>에서 아버지 역시 추운 겨울밤 시적 화자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며, 자식을 보호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병아리뿐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이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강인함을 파악할 수 있다.

045 **총, 꽃, 시** 정재찬 110~111쪽

키포인트 체크 꽃, 폭력, 시, 동요
 1⑤ 2③ 3③ 4총은 꽃을 이길 수 없으며, 꽃을 닮은 시는 폭력적이고 강한 것을 이겨 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1 이 글은 꽃과 시가 총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 시, 동요, 사진, 그림 등의 자료를 차례로 열거하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

2 ③ '그걸 어쩌란 말씀'은 할머니의 전쟁에 대한 노여움과 분노에 화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음을 나타낸 말로,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전쟁을 환상이나 낭만으로 여겨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방공호'는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땅속이나 산속에 파 놓은 굴이나 구멍이 따위의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 '채송화 꽃씨'는 전쟁이라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언제든 이겨 내고 새롭게 희망의 세계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④ '할머니의 노여움'은 계속되는 전쟁 상황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지구(地球)가 깨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전쟁의 비정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제시된 그림은 카투니스트인 지현곤 작가의 그림으로, 전쟁 속에서 부각되는 꽃의 순수함을 보여 주고 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아이는 총을 든 군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 있다. 이를 통해 작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꽃'이 크고 강한 것, 폭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장애를 극복하려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4 '총'은 폭력적이고 강한 힘을 의미한다. 그 '총'에 맞서는 것이 '꽃'이다. '꽃'은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담긴 평화와 희망의 힘으로 인해 '총'은 결코 '꽃'을 이길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꽃'을 닮고자 하는 것이 '시'라는 점에서 '시'는 '꽃'이 상징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꽃'과 '시'는 모두 '총'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국 문학

1 | 한국 희곡

001

산돼지_ 김우진

164~167쪽

키포인트 체크 현실, 일제, 최 주사댁, 꿈속, 사회 개혁

1 ④ 2 ④ 3 ③ 4 차핵과 영순의 혼인을 반대한다. 5 ③ 6 ⑤
7 <보기>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는 인물의 꿈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8 ⑤

- 1 원봉은 영순을 차핵과 혼인시키려는 최 주사댁과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원봉과 최 주사댁은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순에 대해서는 ‘보석’, ‘보물’ 등으로 비유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차핵에 대해서는 자신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영순을 뺏어간다고 여겨 미워하고 있다.
- 2 ‘산돼지’는 현실의 모순에 저항하는 자를, ‘집돼지’는 현실에 순응하는 자를 의미한다. 원봉은 “혁이는 산돼지도 못 되고 집돼지예요.”라고 이야기하며 최 주사댁이 영순을 차핵과 결혼시키려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심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원봉이 산돼지보다 집돼지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3 ㉠은 원봉의 친부모, ㉡은 최 주사, ㉢은 원봉, ㉣은 영순, ㉤은 차핵을 의미한다.
- 4 원봉은 차핵에 대한 반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최 주사댁이 차핵을 영순과 혼인시키려고 하기 때문으로, 원봉이 최 주사댁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차핵과 영순을 혼인시키려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 5 (나)는 동학 혁명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으로, 사실적이라기보다는 표현주의 기법을 통해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6 ㉠의 ‘이런 산돼지’는 원봉 자신을 의미하는 말로, ㉡에는 ‘집 안’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원봉의 생각이 담겨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을 영순과의 연애 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최 주사댁은 산돼지 같은 원봉이 현실에 순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③ 원봉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의무와 현실의 벽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최 주사댁이 영순을 차핵과 맺어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원봉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원봉이 겪는 좌절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최 주사댁이 원봉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다고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7 <보기>는 문 여사와 세정이라는 두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원봉의 꿈을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8 동학당 전군 행렬이 등장하는 팬터마임 부분은 동학 혁명이 발발하고 실패하기까지의 과정을 축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팬터마임의 끄트머리에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수천 리 걸어온 피로된 보조로 지나간다.”

라는 지시문으로 보아 힘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즐거운 함성 소리를 효과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④ (나)의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원봉이는 잠들고 무대는 어두워진다.”로 보아 (나)의 장면이 원봉이 꿈속에서 보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조명이 변화를 주면 (나)가 원봉이 꿈속에서 보는 장면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002

토막_ 유치진

168~171쪽

키포인트 체크 가장, 무조건, 농촌, 일본, 백골

1 ④ 2 ④ 3 ⑤ 4 ⑤ 5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상징한다. 6 ④ 7 ① 8 ⑤ 9 사건을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고 있다.

- 1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비참한 삶을 이어 가고 있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에 나타나는 명서 일가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명수의 신변에 대한 명서 일가의 다양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③ 명수를 걱정하는 명서 일가의 모습은 당시 우리 민족의 심정과 연관이 있다.
⑤ 명서 일가의 비참한 모습은 당시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을 상징하고 있다.
- 2 명수는 가족을 위해 폭력을 쓴 것이 아니고, 명수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그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으로 보아 명수가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들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머리를 푼다’는 것은 관용적으로 ‘상을 당하여 틀었던 머리를 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서 일가의 기대와 달리 명수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4 ④의 ‘바람 소리’ 효과음은 명서 처가 금녀에게 머리를 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명서의 마지막 대사도 이와 관련이 있다.
- 5 이 작품에서 명서 일가는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하며, 명서 일가가 살아가는 토막은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 6 명서 처는 명서가 마지막 대사를 할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백골을 안치해 놓고 함장하고 있어야 한다.
- 7 이 작품이 초연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인 1933년이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상과 민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점에서 관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허구적인 사건이다.
③ 개인의 삶이 아닌 민족 전체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④ 풍자적인 기법은 쓰고 있지 않다.

⑤ 서정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 8 이 작품의 급너는 오빠 명수가 죽은 상황에서도 꼭 잡고 돌아가자며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의 영희는 가족들의 의미 없는 기다림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을 뿐,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9 배달부는 명수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명서의 가족들에게 명수의 유골이 담긴 소포를 배달한다. 이것을 고려할 때 배달부는 극의 전개를 파국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03

영웅 모집_채만식

172-175쪽

키포인트 체크 풍자, 공원, 영웅, 영웅

1 ⑤ 2 ④ 3 ⑤ 4 피에로가 관객들과 같은 시선으로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느낌을 받게 하여 관객들은 극 중 상황에 더욱 몰입할 수 있고 피에로의 비판적 시선으로 무대 위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5 ③ 6 ③ 7 ⑤ 8 ② 9 피에로의 무지함을 드러내 피에로를 풍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1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잘되면 조선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아들의 입장에 아버지도 동의하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아버지는 예전에 절이었던 곳이 불에 타고 탑만 남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사리탑이라고 말하며 사리탑과 관련한 내력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② “조선서 태어나서 조선서 저만큼씩이나 자라 가지고 아무리 살 수가 없어 만리타국으로 떠나기는 할망정”이라는 아버지의 대사를 참고할 때, 이주민 가족은 조선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어 조선을 떠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아들은 “인제 잘되면 돌아와서 보아란 듯이 살 텐데.”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근심을 위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들이 앞날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언제 다시 와서 서울 구경을 하겠냐며 공원을 잘 봐 두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멀리 떠나는 마당에 서울 구경이 무슨 소용이냐고 불평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공원’은 계층, 직업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원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원을 오가는 다양한 인물의 대화, 행동을 제시하여 당대의 암담한 현실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3 ㉔에는 피에로가 조선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이주민 가족에 대해 느끼는 연민과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㉕에는 일제 강점하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주정꾼들에 대한 피에로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피에로가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① ㉔에서 공원을 떠나는 이주민 가족을 관찰하는 인물은 피에로이고, ㉕에서 주정꾼들을 관찰하는 인물은 피에로이다.

② ㉔와 ㉕는 피에로가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중들을 바라보며

떠올린 생각과 행동이므로 시대적 현실과 관련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③ ㉔에서는 피에로가 “조선을 죽도록 지키잖구!”라는 대사(언어적 표현)와 울듯이 바라보는 표정(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이주민 가족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비언어적 표현이란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등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㉕에서는 피에로가 얼굴을 찌푸리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주정꾼들을 못마땅해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4 객석을 등지고 선 피에로는 관객과 똑같은 시선에서 무대 위를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구도는 관객이 피에로와 같은 관점에서 무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관객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더욱 집중하게 하고 피에로의 심정에 공감하며 극을 감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5 ㉔에는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피에로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피에로의 긍정적인 면모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㉕에서 피에로는 약을 팔듯이 광고하여 영웅을 모집하려 하고 역사 속 인물들의 국적을 잘못 말하여 ㉔에서와 달리 영웅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㉕에서는 영웅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는 인물의 긍정적 면모가, ㉕와 ㉖에는 인물의 부정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② ㉔에는 피에로가 불안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㉕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㉕에서 피에로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㉔에서 피에로는 영웅을 모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판적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하지만 ㉕와 ㉖에서 피에로의 비판적인 사고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와 엉뚱한 특권을 내세우는 모습을 통해 ㉔에서의 비판적인 사고가 진정성을 잃고 있다.

- 6 이 작품에서 무대를 잠시 비운 것은 현재의 상황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장면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장면 전환 후에도 피에로가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7 이 작품에서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제시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8 소년들은 피에로의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자 성어로는,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뜻하는 ‘문동답서(問東答西)’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보기 ① 서로서로 도움을 이르는 말.

③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⑤ 어렵고 의심스러운 것을 서로 묻고 대답함을 이르는 말.

- 9 피에로는 조선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웅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㉔에서 인물의 국적을 잘못 말하고 있다. 게다가 그중에는 영웅이라고 볼 수 없는 독재자도 있

다. 피에로가 영웅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지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004

소_유치진

176~179쪽

키포인트 체크 소작농, 소, 일제, 농촌, 빛, 사슴(마름)

1 ④ 2 ⑤ 3 ⑤ 4 소를 팔아 자신의 밑천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함.
5 ④ 6 ② 7 ⑤ 8 ③ 9 명줄

1 이 작품은 인물들이 일상적인 구어체와 비속어, 방언 등을 사용하여 국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사실주의 극으로, 과장된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 ② 관객을 참여시키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조명을 사용하여 막과 막, 장과 장을 구분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함께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이 글에서 '소'는 국서에게 함부로 팔 수 없는 대상이며, <보기>의 '소'는 최 노인과 30년 넘게 동고동락한 사이이다. 따라서 '소'는 각각 인물들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과 <보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② 농민의 소박하고 넉넉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보기>의 '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③ 이 글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국서와 개똥이가 소를 파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3 ㉠은 구석에 숨어 있는 말뚝이가 사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투덜거리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개똥이는 농사일을 도우라는 국서의 말에 소를 팔아 한밑천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돈으로 항구에 나가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하고 있다.

5 <보기>는 소지주나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소로 빛을 갚았다고 해도 빛은 또다시 쌓이게 될 것이며,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는 데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6 (나)에는 '도지' 때문에 일어나는 국서네 가족과 사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서네가 내지 못한 '도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7 사슴은 국서와 국진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밀린 도지를 대신해서 소를 데려가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소를 몰고 가겠다고 본심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②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을 밝히고 있다.
③ 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국서와 국진을 대하고 있다.
④ '이래서는 뒷일이 좋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며 위협하고 있다.

8 ㉠은 자식을 팔면서도 돈이 생긴 것에만 기뻐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부자를 동경하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9 국서의 처는 밀린 도지 대신 소를 데려가겠다는 사슴의 횡포에 '남의 집 명줄'을 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서와 국서 처에게 있어 '소'는 집안의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삶의 희망을 의미한다.

005

제향날_채만식

180~183쪽

키포인트 체크 저항적, 구한말, 프로메테우스

1 ① 2 ③ 3 ④ 4 그리해서 느끼는, 있는 것이다. 5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전한 불에 담긴 정신이 우리 민족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6 ② 7 ④ 8 ③ 9 ③ 10 최 씨가 바라는 가정의 안녕이 좌절될 것임을 의미한다.

1 (가)는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인이 최 씨와 영오에게 해 주는 이야기의 내용에 해당한다.

2 화로에 관한 내용은 최 씨의 대사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 이 글에서 최 씨가 화로에 불을 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 "뭘, 거저뿌렁! 성냥이 있는데 왜 불이 없어!"라는 영오의 대사는 의심이 많은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시인들이 등장하는 신화 속의 세계에도 성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하고 순진한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에서는 신화와 현실의 상황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므로, 빠른 장면 전환이 필요하다.

②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소품으로는 프로메테우스가 원시인들에게 건네는 횃불, 최 씨가 껍질을 벗기고 있는 밤 등이 필요하다. 또한 '김생의 털가죽으로 몸을 가린 원시인'이라는 (가)의 내용으로 보아, 의상으로는 짐승의 털가죽 등을 준비해야 한다.

③ (가)의 내용으로 보아 원시인들은 프로메테우스와 불을 보고 겁을 내며 뒤로 물러나고 있으므로, 불을 경계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프로메테우스는 신화 속 인물이므로 인간인 원시인들과 달리 비범한 느낌이 들도록 분장과 말투를 신경 쓰는 것은 적절하다.

4 프로메테우스의 두 번째 대사에서, 먼저 불의 세부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5 ㉠은 불의 영속성이 우리 민족의 삶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6 상인이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도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상인이 최 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최 씨는 상인이 공부만 착실히 잘해서 장하게 되어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

③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는 상인을 따라가려 하는 모습에서 영오가 상인을 친근하게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상인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 ⑤ 영오는 최 씨에게 상인이 사회주의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7 ㉠의 이전과 이후는 모두 신화 속의 세계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신화의 장면과 극 중 현실 상황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조명이다.

8 ㉡은 상인과 상인 아버지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사로, 상인 역시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항적 삶을 살아갈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9 <보기>의 윤 직원은 자신의 처지가 편하다는 이유로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고 있다. 의로운 성격의 상인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상인이 사회주의를 조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이 글에 나타난 상인의 의연한 모습과 크게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
- ④ 일본 순사들의 보호를 긍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대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10 상인이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은 동학 농민 운동, 3·1 운동 등과 같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 씨에게는 상인의 선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정에 고난을 가져오게 될 행동에 해당한다.

006 동승_함세덕

184~187쪽

키포인트 체크 어머니, 주지, 절, 미망인

- 1 ② 2 ⑤ 3 ⑤ 4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나려는 도념과 불도를 내세워 도념을 막으려는 주지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5 ① 6 ③ 7 ④
- 8 ② 9 앞으로 도념의 삶이 험난할 것임

1 이 작품의 배경은 현실적인 공간인 깊은 산속의 절로,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 특별한 실험적 기법은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도념은 절을 벗어나 세속적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한다.
- ③ 인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투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주지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야 함을 강조하고, 도념은 속세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어 서로 갈등하고 있다.
- ⑤ 주지의 대사를 통해 도념의 부모의 과거사가 드러난다.

2 <보기>는 이 작품의 일부분을 소설화한 장면이다. 소설은 희곡과는 달리 서술자가 등장해 극 중 상황이나 인물, 사건을 서술하게 된다. 그에 비해 희곡은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인물들이 대사와 행동을 전개함으로써 사건을 이끌어 나간다.

3 주지는 도념을 속세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속세를 연못에 비유하여 길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속으로는 '개흙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속세가 길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혼란스럽고 더럽고 부정한 공간임을 언급하며 도념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동정심이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

음으로, 주지가 도념의 동정심을 유발한 것은 아니다.

②, ④ 권위자의 견해나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지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도념의 약점이 아니라 속세의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다.

4 도념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절을 나가 세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지는 세상의 더러움과 혼란을 내세워 불도를 닦으며 절에 머무르기를 강요하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5 초부는 도념의 결정에 대해 처음에는 만류하지만 이내 잘 생각해서 하라며 그의 뜻을 존중하고 도념을 보내 주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② 잣을 두고 가는 행동은 주지와 이별하고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③ 도념은 주지 몰래 절을 떠나고 있다.
- ④ 미망인은 주지의 반대 때문에 도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주지는 미망인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도념이 절에서 업보를 씻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도념의 입양을 반대하고 있다.

6 <보기>에 따르면 독백이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혼잣말이다. 그런데 도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에 한 혼잣말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지 스님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7 주지는 미망인을 엄하게 꾸짖고 있으므로 '애원하면서'라는 지시문은 적절하지 않다.

8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여러 차례 꾸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9 '눈 내리는 비탈길'은 넘어지기 쉬워 내려가기 힘든 길이다. 도념이 이와 같은 길을 내려가는 결말은 앞으로 도념의 삶이 험난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007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_오영진

188~191쪽

키포인트 체크 친일, 해방, 자살극

- 1 ② 2 ② 3 ③ 4 경동맥으로 면도칼을 싹둑 잘라 버렸는걸. 5 ③
- 6 ④ 7 ④ 8 욕심 때문에 살아 있다고도 죽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중생을 풍자

1 이 작품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거짓 초상을 무시하 마하려는 이중생 일가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최 변호사는 이중생의 거짓 자살을 계획하고 꾸민 인물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중생의 거짓 자살극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중생의 비리를 조사하고 그의 재산을 보전 시설 건립에 쓰자고 송달지에게 제안하는 인물이다. 즉, 최 변호사는 이중생의 재산을 지키려 하고 김 의원은 그의 재산으로 공익사업을 하려는 점에서 갈등하고 있다.

3 ㉠은 최 변호사가 김 의원의 조사를 이중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이중생을 칭찬한 말이다. 이중생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중생에 대한 최 변호사의 언급은 얕은수로 상대를 속이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은 얕은수로 남을 속이

려 한다는 말이다. 또는 실제로 보람도 없을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체하며 부질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우물 안 개구리’는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또는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② ‘걱정도 팔자’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거나 관계도 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에게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④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공연히 의논함을 이르는 말이다.

4 “경동맥으로 면도칼을 싹둑 잘러 버렸는걸.”은 이중생의 죽음을 거짓으로 설명하다가 나온 말실수로 웃음을 유발한다. 극 중에서 이중생은 실수로 비밀을 폭로하거나 누설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이중생과 김 의원은 서로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최 변호사를 통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송달지는 이중생의 당부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밝혀 김 의원의 결정에 힘을 실어 준 것 때문에 이중생과 갈등을 빚는다.

② 최 변호사는 죽은 척하고 있는 이중생의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송달지의 의견에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며 의견을 받아들여 이중생의 재산을 보전 시설 건립에 쓰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최 변호사는 김 의원의 눈치를 보며 이중생의 재산을 지키려 하고 있다.

6 (나)는 이중생이 자신의 계획과 달리 전 재산이 보전 시설을 세우는 데 쓰이게 되자 이에 찬성한 송달지에게 화를 내는 부분이다. 이중생은 ‘두 팔을 휘두르고 두 발을 궁그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사위인 송달지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중생이 쉽게 흥분했다 쉽게 화를 가라앉히고 있지 않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7 이 작품에서 인과응보의 구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인물은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생을 마치는 주인공 이중생이다.

8 “자넨 살아 있는, 아니 죽어 있는! 아아, 아니 살아 있는 이중생……”은 이중생이 자신을 살아 있다고 해야 할지 죽어 있다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이다. 이는 재산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자신을 죽었다고도 살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이중생을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2 최 노인은 조그마한 화단 앞에 꾸그리고 앉아서 화초며 푸성귀들을 손 보고 있다. 입에 물린 파이프에서 뿜어지는 담배 연기가 한가롭게 보인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무대 지시문에서 최 노인의 집을 폐가와 같이 묘사한 것으로 보아 이는 최 노인이 물질적으로 여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최 노인의 집은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아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풍겨 나오는 곳이다.

③, ④ 최 노인의 집은 변화한 상가 중간에 끼어 쇠락해 가는 공간이므로 근대화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⑤ 최 노인은 낡고 좁은 집에서 이사를 나가자는 경재의 말에 제집을 가진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면서 화를 내고 있다.

3 이 작품의 최 노인과 <보기 2>의 ‘할아버지’는 모두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옛 세대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경운과 경재가 옛것보다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데 비해, <보기 2>의 ‘나’는 어쩔 수 없이 최근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할아버지에 대한 불효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4 경재는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어 오며 아버지 최 노인에게 ‘물 흔한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한다. 그리고 경재가 지금의 집이 ‘계딱지 굴속’처럼 낡고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최 노인은 화를 내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5 군중의 웅성거림은 경수가 잡혀가는 사건의 충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는 않는다.

6 이 작품과 <보기>의 가장 큰 차이는 결말 처리 방식으로, <보기>에서는 경애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화합을 통한 희망적 분위기를 연출하며 막을 내린다. 그러나 <보기>에서 경재의 역할을 부각하여 신세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에서는 이 작품과 달리 경수의 애인인 춘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② ‘불모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제목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태양’을 활용해 제목을 바꾸었다.

③, ⑤ 이 작품에서는 경수가 체포되고 경애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보기>에서는 경수가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다시 한번 살아보자, 경재야.”라고 하며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 노인도 이사를 결심하면서 희망적인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7 최 노인은 경수가 강도 사건으로 잡혀간 직후 큰딸 경애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맞닥뜨린다. 이는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 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남을 의미함.

② 얼마쯤 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을 의미함.

③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⑤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물결이 더욱 꿀볼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08

불모지_ 차범석

192-195쪽

키포인트 체크 최 노인, 자식, 종로, 이사, 시기

1 ③ 2 ② 3 ⑤ 4 최 노인과 경재는 낡은 집에서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다. 5 ④ 6 ④ 7 ④ 8 고층 건물로 상징되는 근대화

1 이 작품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사회 인식과 현실이 어떠한지

8 최 노인은 “폴포기만 시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까지…… 아니 이게 정말이야?”라고 하였다. 최 노인은 ‘폴포기를 시들게 하는’ 것 때문에 딸 경애가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폴포기를 시들게 한 것은 ‘최 노인’의 집 주변에 지은 ‘고층 건물’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고층 건물’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고층 건물로 상징되는 근대화’가 적절하다.

009 성난 기계_ 차범석 196~199쪽

키포인트 체크 기계, 돈, 종합병원, 분노, 인간성

1④ 2① 3⑤ 4② 5 수술비가 아깝고, 아내가 계속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6⑤ 7③ 8② 9㉠: 겉모습(육체) ⑥: 내면(인간성, 정신) 10 '기계'와 같은 회기가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상실한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한다.

- 이 작품은 물질적 가치만을 중요시하여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의 호소에 대한 회기의 인간적 반응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상현의 호소는 주제와 상반되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상현이 “우리 내외가 죽어라 벌어도 어린것들하고 겨우 풀칠하는 판국인데……. 그런 돈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술비 때문임을 알 수 있다(ㄱ). 상현은 아내가 감독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팔 담배를 들고 나오기 위해 하는 행동이므로 모른 척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보기 ㄷ. 상현의 아내는 남편이 팔 담배를 들고 나오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ㄹ. 회기는 상현의 이야기에 의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투로 대응하고 있다.
- ㉠은 상현이 아내가 몰래 가져온 담배를 팔아서 벌이로 삼고 있음을 말하다가 웃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돈 때문에 아내의 부정을 모른 척하고 있는 자신의 치부(恥部)가 드러난 것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멋쩍음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⑥는 상현이 인옥의 폐 수술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숨기고 수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수술을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화자의 의도를 감추고 말하는 돌려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 ㉢, ㉣에는 특별한 의도가 감추어져 있지 않다.
-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수술비가 아깝고, 건강해진 아내가 다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생님, 웬일이세요?”나 “기계가 노하셨네요…….”와 같은 대사를 볼 때, 금숙은 회기의 변화된 성격을 지적하여 관객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다음에 이어지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라는 회기의 대사는 상현

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분노를 터뜨리며’와 같은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보기>에 제시된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변절을 일삼는 기회주의적인 인물 ‘이인국’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과정에서 사회 지도층이 보여 왔던 반민족적 행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소설이다. 외과 의사인 이인국은 돈과 권력을 지향하며, 시대 변화를 재빨리 읽어서 시류에 편승하는 인물이다. 한편, 기계같이 냉정하던 회기는 [A]에 와서 감정을 지닌 ‘성난 기계’로 바뀌며 잠재되어 있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회기는 자기 일신(一身)을 먼저 생각하는 이인국과는 다르므로 ②의 설명이 적절하다.
- 회기의 대사는 인간을 담배에 비유하여 포장보다 알맹이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을 비판하고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이 작품의 주제를 고려할 때, 여기서 ㉠ ‘포장’은 겉모습(육체)을, ⑥ ‘알맹이’는 내면(인간성, 정신)을 상징한다.
- ‘기계’는 회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가 기계처럼 냉정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반면 ‘노하다’는 인간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회기가 분노했다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음을, 즉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010 원고지_ 이근삼 200~203쪽

키포인트 체크 교수, 의무, 돈, 교수, 천사, 꿈

1② 2④ 3① 4③ 5 원고지 무늬로 된 양복은 원고지처럼 규격화된 틀에 얽매어 살아가는 교수의 모습을 상징한다. 쇠사슬은 교수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느끼는 책임감과 구속감, 노동의 중압감 등을 상징한다. 6③ 7② 8⑤ 9② 10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다.

- 장녀는 비참하게 들리는 교수의 하품을 달콤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교수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작품에서 장녀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 이는 객석과 무대를 엄격히 구별하는 서구 전통극의 형식을 벗어난 구성으로, 관객의 극 중 몰입을 방해하는 ‘낯설게 하기’ 효과에 해당한다.
- <보기>의 ‘집’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고립된 공간을 의미한다. 교수가 이 시에 주목했다면 이는 집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일 것이다.
- 희곡에서 장면의 전환은 대개 막을 열고 닫으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작품에서는 조명이 변화를 주어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원고지 무늬로 된 교수의 양복은 규격화된 틀에 갇혀 노예처럼 살아가는 교수의 모습을 상징한다. 교수를 묶어낸 쇠사슬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현실에서 받는 구속감 등을 나타낸다.
- 이 작품에서 조명의 변화는 장면의 전환이나 인물의 등장을 표현할 때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은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명의 변화로 다음 사건이 진행될 방향을 암시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등장인물인 장녀는 관객들에게 인물과 극적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돈이 되는 번역 일에만 매달리는 교수를 장녀가 “그야말로 학자지요.”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교수’, ‘저’, ‘장남’, ‘장녀’ 등의 보통 명사로 제시하여 익명성을 강조하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삭막한 인간형을 드러내고 있다.

⑤ 교수의 잃어버린 희망과 정열을 상징하는 존재인 ‘친사’와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희망과 정열을 잃고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가는 교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7 교수는 과거의 정열을 잠시 떠올리다가 원고를 독촉하는 감독관의 말을 듣자마자 다시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지식+

최승호 <복어>

• 감상: 이 작품은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복어’를 통해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판의 주체였던 화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바뀌는 참신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 주제: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성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

8 ‘함정’은 현재 교수의 삶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교수는 꿈과 정열을 포기한 채 기계적으로 노동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9 ⑥는 시간의 변화를 알려 주는 대사일 뿐이다.

10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이고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프차’가 ‘도망가 버리는’ 기사 내용을 통해 비정하고 부조리한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011

만선_천승세

204~207쪽

키포인트 체크 만선, 모성애, 어촌, 빛, 배

1 ③ 2 ⑤ 3 ④ 4 ④ 5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가치를 의미한다.
6 ① 7 ③ 8 ② 9 뱃사람으로서의 숙명에서 벗어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1 언어유희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를 의미한다. 곰치와 구포택은 바다의 거센 풍랑에 아들을 잃은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언어유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대부분의 대화가 짧고 간결하게 처리되고 있어,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② ‘옹제!’, ‘뭇이라고’ 등과 같이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그물’, ‘뱃놈’ 등의 단어를 통해 곰치의 직업이 어부라는 점과 공간적 배경이 어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드러누운 채)’, ‘(침통하게)’ 등과 같이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구포택은 곰치가 좌절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곰치가 만선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식까지 어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오답 풀이보기 ①, ② 곰치와 구포택은 현재 아들 도삼을 잃고 시련을 겪고 있다.

③ 곰치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만선’이다.

④ 구포택은 도삼을 잃고 남은 자식들의 삶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3 ㉞은 아기를 대를 이어 어부로 시키겠다는 말로 곰치의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는 곰치라는 인물의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④의 다음에 아기를 어부로 키우겠다는 곰치의 말에 놀라서 되묻고 있는 구포택의 대사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㉞에 들어갈 지시문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5 곰치는 바다에서 아들을 잃은 비극적 상황에서도 만선에 대한 집념을 보이며 하나 남은 아들조차 어부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 ‘만선’은 곰치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6 구포택은 곰치의 물음에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을 뿐,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포택이 동문서답(東問西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② 곰치는 널쭌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안 된다는 성삼의 만류를 뿌리치고 있으므로, ‘달리 어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막무가내(莫無可奈)’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③ 성삼은 헛간에서 목숨을 끊은 슬슬이를 보고 기겁하고 있으므로, ‘뚝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람.’을 의미하는 ‘아연실색(啞然失色)’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곰치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어부로 키우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으므로,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⑤ 구포택은 아기를 되찾아 오기 위해 나가려고 하는 곰치의 가랑이를 쥐어 잡고 못 가게 하고 있으므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의미하는 ‘노심초사(勞心焦思)’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7 널쭌을 타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성삼은 무모한 행동을 하려는 곰치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된다는 어이없는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8 이 작품에는 곰치와 구포택 사이에 겪는 인물 간의 갈등(㉠)과 어부로서 만선의 꿈을 이루고자 투쟁하는 곰치의 의지와 운명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9 구포택은 아이를 빈 배에 태워 떠나보낸 후, (가)에서 거칠게 아이의 행방을 묻는 곰치에게 “물으로 가야 안 죽어! 지 명대로 살라면 물으로 가야 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남은 아들마저 어부로 키우려는 곰치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 갈지도 모르는 바다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구포택이 물을 뱃사람으로서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포인트 체크 위선적, 진실, 망루, 다, 이리 떼, 촌장

1 ② 2 ③ 3 ⑤ 4 ④ 5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혀서 얻는 평화를, 촌장은 거짓된 공포를 통해 얻는 질서를 중요시하고 있다. 6 ③ 7 ③ 8 ⑤ 9 진실을 감추면서 촌장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의미한다.

- 이 작품은 '이리 떼', '흰 구름' 등을 통해 권력자의 위선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은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촌장의 대사로,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라는 촌장의 대사나 파수꾼 다를 협박하는 촌장의 모습으로 보아 촌장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흰 구름'은 공동의 위기의식이 아니라 이리 떼의 습격이라는 담론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의미한다.
- <보기>는 우화의 보편성과 상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적하고 있는 것은 ④로, 역사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보편성을, '권력의 부패'는 상징성을 보여 준다.
- 파수꾼 다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이리 떼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한 공포를 유지함으로써 마을의 질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 촌장은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회유, 동정심 유발, 거짓 약속 등 다양한 설득을 통해 서서히 굴복시켜 나가고 있다. 파수꾼 다가 '흰 구름'이 내일 사라지는 것이냐는 촌장의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고 있으며 내일이면 사라지는 '흰 구름' 때문에 촌장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이 작품은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와 이를 은폐하려는 촌장 간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④, ⑤ 파수꾼 다는 촌장에 맞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려려고 하지만 촌장에게 서서히 설득당해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파수꾼 다의 모습을 통해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개인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인물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파수꾼 다를 마을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파수꾼 다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설득당해 결국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고 있다. ②, ⑤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는 '이리 떼'의 진실을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기존 체제와 권력에 순응하는 인물이다. ④ '이리 떼'의 실체가 적힌 파수꾼 다의 편지가 마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촌장과 촌장에게 설득당한 파수꾼 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 이는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의 특성상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관객들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관객들이 극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흰 구름은 이리 떼의 실체로,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이를 무대 전체에 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촌장은 거짓 진실을 강변하는 인물이므로 위선적이지만 진지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 ③ 이리 떼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무대 배경에 이리 떼를 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저항하다가 회유되고 마는 나약한 소년이므로 긴장한 체격의 배우는 적절하지 않다.
- 이리 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촌장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딸기가 있는 장소에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딸기'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며 독차지하고 있는 특권을 상징한다. 촌장은 딸기를 언급하며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다.

키포인트 체크 결혼, 저택, 하인, 물건, 청혼

1 ③ 2 ④ 3 ④ 4 ① 긴장감을 고조하는 ㉠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 5 ② 6 ② 7 ⑤ 8 ① 9 여자가 남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깨닫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 이 작품은 한정된 시간 안에 결혼을 해야 하는 남자의 결혼 과정을 그린 것으로 전래 동화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④ '작가 노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② 남자가 낭독하는 이야기책의 내용은 모두 극 중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⑤ 남자와 여자를 통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 남자가 읽어 주는 이야기책의 내용은 남자 자신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책과 이 작품의 내용이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
- <봉산 탈출>의 '말뚝이'는 '구경하시는 양반들'에게 말을 걸고 있고, 이 글의 하인은 관객에게 극의 진행에 필요한 소품을 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과 <보기> 모두 무대와 객석 간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고 배우와 관객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자가 빌린 물건들은 각각 돌려주어야 할 시간이 다른데, 각 물건을 돌려줄 시간이 다가온다는 설정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물건을 빌렸다가 돌려주어야 하는 설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 남의 것을 빌린 것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하인은 남자를 저택에서 쫓아내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를 가져와 신고 남자에게 다가감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나)에서 남자는 자신이 펼치는 논리만을 강조할 뿐 사회적 통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남자는 "난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빈털터리입니

- 다.”라고 자신의 부정적 면모를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 ③ 관객에게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여자에게 “넌,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④ 무언가를 빌려 소중히 다루다가 돌려주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에게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며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말을 걸어 동의를 구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7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과 여자를 향한 남자의 대사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므로 그것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
- 8 여자가 멈춰 선 이유는 남자에게 미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얼굴은 남자를 외면하는 이유는 빈털터리라는 남자의 조건 때문에 청혼을 승낙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은 있으나 청혼을 승낙하는 것은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남자가 하인의 구둣발에 걸여차이는 모습을 보고 여자는 드디어 남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깨닫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014 동동 낙랑동_ 최인훈 216~219쪽

키포인트 체크 고구려, 죄책감, 대무신왕, 북

1 ⑤ 2 ③ 3 ② 4 자신의 공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낙랑 공주가 희생하였기 때문이다. 5 ③ 6 ④ 7 ③ 8 ⑤ 9 자신 때문에 죽은 낙랑 공주에게 속죄하기 위해서이다.

- 1 부장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를 반복하며 호동의 죄책감을 덜어 주려 하고 있다(ㄷ). 또한 호동의 큰할아버지인 주몽의 선례를 들어 호동이 낙랑 공주의 힘을 빌려 전쟁에서 이긴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ㄹ).
- 2 [A]에서 부장이 호동에게 “공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말씀을 왕자님께서 들었을 때처럼 무서웠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부장이 호동과 낙랑 공주 사이에 있었던 일을 호동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장이 늘 호동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호동과 낙랑 공주이므로 부장이 극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① 오답 풀이보기 ① [A]에서 공주의 비중이 큰 편이므로 연극 속의 연극으로 재구성할 때 공주를 직접 등장시키면 관객의 흥미 유발과 사건의 자연스러운 진행에 도움이 된다.
- ② 조명을 통한 배경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 ④ 희곡은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배경이나 대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 ⑤ [A]에서 왕비는 비중이 적으므로 굳이 무대에 등장할 필요 없이 왕비가 자명고의 비밀을 말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호동과 낙랑 공주의 대사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 3 ⑥는 낙랑 공주의 쌍둥이 언니이자 호동의 의붓어머니인 ‘왕비’를 의미한다. 반면 ③, ④, ⑤, ⑥는 모두 ‘낙랑 공주’를 의미한다.
- 4 이 글에서 호동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추켜세우는 부장의 말에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 전쟁에서의 승리가 사실은 연인인 낙랑 공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 5 <보기>에서 낙랑 공주는 자명고를 찢은 후 아버지인 낙랑 태수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작품에서 낙랑 공주와 자신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왕비가 “이 몸은 비록 아버지 칼에 쓰러졌을망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에서 역시 낙랑 공주가 자명고를 찢은 후 부모의 칼에 목숨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오답 풀이보기 ④ 호동은 <보기>에서는 왕비의 참소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주몽의 신내림을 받은 왕비의 판결 때문에 죽게 된다.
- ⑤ <보기>에서는 호동이 공주에 대한 사랑으로 번뇌하다 자살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공주에 대한 변민 때문에, 울려서는 안 될 검은 북을 울려 난쟁이의 칼에 죽게 된다.
- 6 호동은 제단 위에 있는 왕비와 대화하다가 휘장 뒤로 이동하여 난쟁이에게 목이 잘리게 된다. 따라서 휘장 뒤에 제단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호동은 자신이 고구려의 왕자임을 잊지 않고 있으나 낙랑 공주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빛을 갠기 위해 검은 북을 울리고 있다. 반면 왕비는 죽은 호동을 보고 자신과 낙랑 공주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죽은 호동을 따르려 하고 있다.
- 8 왕비는 낙랑 공주 역할을 하면서 역할 놀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왕비가 기억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 9 호동은 낙랑국을 상징하는 검은 북을 치고 있다. 이는 자신 때문에 죽은 낙랑 공주에 대한 속죄이자,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015 칠산리_이강백 220~223쪽

키포인트 체크 빨치산, 이념, 칠산리, 면장, 무덤, 무덤

1 ⑤ 2 ④ 3 ① 4 등장인물이 무대 가운데로 나왔다가 역할이 끝나면 퇴장하고 장면을 드러내는 소품을 사용하여 한 무대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도록 구성하였다. 5 ② 6 ⑤ 7 ④ 8 차남은 칠산리만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장남은 어머니가 계신 모든 곳이 칠산리이기 때문에 그 어디든 어머니를 모신 곳이면 고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이 작품에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희곡의 경우 서술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해설자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① 오답 풀이보기 ① 어미 무덤의 이장 문제를 둘러싸고 자식들과 면장이 갈등을 겪고 있다.
- ③ 면장은 면사무소가 문을 닫을 시간이라면서 자식들에게 결정을 재촉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 자식들은 합창을 통해 세상의 온갖 색을 지우고 새하얗게 세상을 덮는 눈과 같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노래하고 있다. 합창에는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들을 품어 낸 어머니에 대해 자식들이 느끼는 그리움과 존경심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합창을 통해 면장과 자식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보기 ① 자식들은 합창을 하며 어머니의 희생을 기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결속된 모습을 보인다.

3 <보기>를 통해 과거의 전쟁과 이념 대립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로 인한 상처와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4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장면이 전환된다. 간난이는 죽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퇴장하고 면장은 직접 책상을 밀며 무대 가운데로 나온다. 이처럼 이 작품은 빠른 장면 전환과 이야기 전개를 위해 등장인물들이 무대로 나왔다가 역할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퇴장하도록 하고, 장면을 드러내는 소품을 사용하여 한 무대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5 (가)에서는 어머니의 무덤 이상 문제를 두고, 자식들 간에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칠산리에 대한 감정은 자식들마다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자식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6 다른 자식들이 칠산리에 오지 않은 이유는 이 글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따라서 칠산리에 오지 않은 자식들을 치유와 화합을 거부하거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③, ④ 장녀는 칠산리를 인정하면 어머니의 자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장녀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식들 간의 갈등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다. 반면 장남은 칠산리에 오든 오지 않든 모두가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말하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7 (나)에서는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 온 세상이 새하얗게 된다고 하며, '눈'이 내리는 모습을 어머니의 사랑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어머니가 버려진 자식들을 감싸 주었던 것처럼 새하얀 눈이 이념 갈등으로 혼탁한 세상을 뒤덮는 모습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보기>는 '물'과 '불'의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 삭막하고 황폐한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나'와 '나'가 '우리'가 되는, 생명력과 조화가 넘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 시의 일부분이다. <보기>의 '물'은 포용력, 생명력, 정확력을 지닌 존재를 상징하며,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을 잠재우고 '그대'를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은 갈등, 대립,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평화와 화합,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로 이끈다는 점에서 (나)의 '눈'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

☞오답 풀이보기 ① 불: '물'과 대립되는 시어로, 모든 것을 태워 버린다는 점에서 죽음, 파괴, 소멸을 상징하고 있다. 갈등을 잠재우고 포용하는 '눈'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② 솟이 된 뱀: '불'에 의해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를 의미한다.

③ 그대: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으로, 포용과 화합의 모습으로

만나고자 하는 존재이다.

⑤ 하늘: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완전한 합일을 이루고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이자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만남의 공간을 상징한다.

지식+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이시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이라는 가정법 형식을 통해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길을 따라 흐르며 메마른 것들을 적시고 바다에 닿는 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삭막하고 뜨거운 불과 뜨거운 세상을 잠재우고 치유하는 물의 이미지를 대비함으로써, 생명력의 회복과 그대와의 만남에 대한 열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차남은 칠산리가 '마지막 돌아갈 곳'이므로 어머니 무덤은 칠산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칠산리를 고향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장남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지 칠산리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장남에게는 고향이 특정한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016 북어 대가리_ 이강백

224~227쪽

키포인트 체크 지양, 창고, 산업, 창고, 편지, 기임

1 ④ 2 ④ 3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이다. 4 물건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으, 알려야 한다. 상자를 잘못 배달할 일의 결과도 모르, 알릴 필요가 없다. 5 ③ 6 ③ 7 ② 8 자양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 과 신념에 의혹을 품지만 이내 자신의 일상을 되풀이한다.

1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 등의 명칭은 원래의 이름이 아닌 별명이라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익명성과 관련 있다. 이러한 별명이 개인의 가치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편지'는 자양이 잘못 배달된 상자에 대한 내용을 담아 상자 주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가 담겨 있을 뿐, 운전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창고'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으로, 자양은 운전수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보기>에서 '창고'가 창문도 없이 출입구만 있는 어둡고 해가 들지 않는 공간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자양은 엉뚱하게 바뀐 상자 때문에 물건이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자 주인에게 물건이 잘못 배달되었음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와 달리 운전수는 상자 속의 부품으로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자를 잘못 배송한 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도 모르므로 덮어 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 기임은 창고에 혼자 남게 될 자양을 걱정한다.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려는 다령의 행동을 저지하고 북어 대가리를 건네며, 창고 앞 상자들을 창고 안으로 옮겨 주고 갈지 묻기도 한다. 기임의 이러한 행동에는 떠나는 사람으로서의 미안함과 홀로 남겨질 자양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과 해설

- 6 '폐쇄적 산업 사회'는 다른 곳에서의 일은 알지 못한 채 맡겨진 일에만 충실해야 하는 '창고'와 대응한다. 또한 자양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복어 대가리'는 정체성을 잃고 기계화되어 가는 현대인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에서 기임에게 줄 스웨터를 건네는 자양의 대사를 부드러운 어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자양이 헤어지는 날을 예상하며 스웨터를 준비한 것이 아니므로 안도감보다는 아쉬움이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다량은 기임이 얻은 물건을 챙겨서 함께 창고를 떠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자양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기임을 떠나보내며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8 ㉠에서 자양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신념에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창고 밖의 세상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창고 안에서의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자양은 이내 자신의 의심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와 같이 늘 하던 대로 상자들을 쌓고 있다.

017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_ 양귀자 원작, 김윤주 각색 228~231쪽

키포인트 체크 남편, 아내, 임 씨, 원미동, 옥상

1 ③ 2 ④ 3 ① 4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5 ⑤ 6 ② 7 ⑤ 8 ① 9 ⑤ 10 임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고용된 것을 알면 자괴감을 느낄까봐 임 씨를 배려하여 말한 것이다.

- 1 이 글에서는 '가리봉동'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드러내 극의 내용에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②, ④ 이 글은 낭독극이기 때문에 각 역할을 맡은 연기자의 목소리 연기를 중심으로 하여 극이 진행되며 특별한 의상이나 분장, 무대 장치가 없다.
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 임 씨가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는 '쉐타 공장 하던 놈'에게 떼인 연탄값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이다. '노가다들'의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가리봉동에 가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임 씨가 떼인 연탄값은 '자그마치 팔십만 원'이다. 이는 임 씨가 '쉐타 공장 하던 놈'에게 일 년 동안 대준 연탄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 씨가 떼인 연탄값이 임 씨에게 매우 큰돈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임 씨가 떼인 연탄값은 임 씨 가족의 생활비로 쓸 돈을 짐작할 수 있다.
- 3 ㉠은 임 씨가 기술적으로 뛰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임 씨가 정성을 들여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임 씨에 대한 남편의 존경심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내레이터의 대사 중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임 씨

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가 첫 견적대로의 금액을 다 받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오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 이 글에서 남편은 임 씨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러한 남편과 임 씨의 관계 변화를 통해 작가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 씨를 불신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 각박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남편과 아내는 평범한 소시민이며 이 글에는 이들의 일상이 나타나 있다.
②, ④ 남편과 아내는 임 씨가 견적서를 받아 다시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공사비를 더 많이 요구할까 봐 경계하였다. 그러나 임 씨가 비용을 정직하게 계산하여 처음의 견적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자 당황하며 임 씨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6 ㉠처럼 말하고 남편을 쳐다보는 아내에 대해 남편이 '옥상 일까지 시켜 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렸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아내가 '조금 깎아 주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을 생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7 임 씨가 ㉠처럼 말한 이유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부부에게 정직하게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이다. 부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 8 ㉡에는 남편이 임 씨가 견적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느끼는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드러나 있다. ①은 운동주의 <참회록>의 일부분으로 국권 상실의 역사를 경험한 화자가 암울한 시대에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부끄러움과 고뇌가 드러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② 이성부의 <벼>의 일부분이다. 이 시는 '벼'라는 소재를 통해 민족, 민중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 작품으로, 비유와 상징의 기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의 일부분이다.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맑은 낮을 지닌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김영랑의 <오월>의 일부분이다. 오월에 느낄 수 있는 봄의 생명력을 향토적인 소재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⑤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일부분이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견디어 나가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시로, 고통을 직시하고 그에 맞서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 9 남편은 임 씨가 처음의 견적보다 적은 비용을 청구하자 당혹스럽기도 하고 임 씨가 수고의 대가를 너무 적게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에 어울리는 지시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한 표정으로'가 적절하다.
- 10 남편이 임 씨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지만 임 씨에게 동갑이라고 말한다. 이는 임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고용된 것을 알면 자괴감을 느낄까봐 임 씨를 배려하고자 한 것이다.

2 | 한국 시나리오

030

오발탄_ 이범선 원작, 나소운·이종기 각색

244~247쪽

키포인트 체크 무력감, 6, 25, 아내, 이, 치과

1 ③ 2 ① 3 현실에 대한 거부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 고향에 대한 그리움 4 ⑤ 5 ④ 6 현실의 고통과 압박감에서 해방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7 전후 사회에서 삶의 방향 감각을 잃은 철호의 모습을 의미한다.

1 집으로 돌아온 철호는 명숙에게 아내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듣고 병원으로 가지만 이미 아내는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거리로 나온 철호는 자신이 동생 영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지만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철호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병원비를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명숙이 준 돈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명숙이 준 돈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가자!”는 어머니의 편지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이다. 또한 어머니의 이러한 외침에 대한 철호의 감정은 비극적 상황에 대한 분노이지, 이를 단순히 불만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철호가 아내가 위독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을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잘못된 것은 회생보다 사고에 가까운 일이다. 철호 또한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

2 <보기>의 “철호는 갑자기 이가 썩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아니 벌써 전부터 훌쩍훌쩍 썩는 충치가 갑자기 아팠다. 양쪽 어금니가 아래 위 다 썩었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썩는 것인지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에는 치통을 앓는 철호의 괴로운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는 S# 110에서 ‘철호의 얼굴이 점점 찌푸러지며 손으로 볼을 움켜쥐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월남민인 철호의 어머니는 전쟁의 상처로 정신 이상자가 된 인물이다. 철호의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고향으로, “가자!”라는 말에는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 <보기>에서 만도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한쪽 팔을 잃었고 아들인 진수는 6·25 전쟁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었다. 만도가 진수를 등에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서로에게 의존함으로써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도는 철호에게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가족 간에 서로 힘을 합해 이겨 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보기>는 괴를 흘리고 있는 철호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물에게 닥친 비극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A]에서는 떨어지는 유성과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 등 원경에서 잡은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6 이 작품에서 철호가 겪는 치통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철호의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앓던 이를 모두 뽑아 버리는 철호의 행위는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 버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철호의 양심이 소용없게 되는 전후 사회의 부조리는 결국 철호를 ‘잘못 쓴 탄환’과 같이 방향 감각을 잃은 ‘오발탄’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오발탄’은 전후 사회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철호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31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_ 조세희 원작, 박진숙 각본

248~251쪽

키포인트 체크 난장이, 재개발, 판자촌, 철거 계고장

1 ⑤ 2 ② 3 ③ 4 철거 계고장을 받은 난장이 가족에게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민망해서 5 ① 6 ④ 7 ⑤ 8 ④ 9 현재의 시련을 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영희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1 S# 12에서 통장이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 있는 난장이 가족에게 철거 명령을 알리는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통장은 난장이 가족에게 돈을 구해 아파트 입주를 하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가난한 난장이 가족에게는 그 대안이 실현 불가능한 대안임을 알기 때문에 민망해하고 있다.

2 ‘철거 계고장’은 무허가 판자촌에 있는 난장이 가족의 집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담긴 문서이다. 난장이 가족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철거 계고장은 앞으로 난장이 가족이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여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3 이 글과 달리 소설인 <보기>에는 서술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기>에서 서술자인 ‘나’가 도시 빈민의 비참한 처지를 직접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에서는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말했다’, ‘중단했다’, ‘내려다보았다’와 같이 과거 시제로 서술하고 있다.

② <보기>는 작중 인물인 ‘나’(난장이의 큰아들인 영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보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통장이 등장하여 난장이 가족에게 철거 계고장을 전달함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4 철거 계고장을 전달하러 온 통장은 난장이 가족에게 20일 안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을 전하며 대안을 제시하지만 가난한 난장이 가족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제안임을 알기 때문에 민망해하고 있다.

5 S# 17은 가난한 난장이 가족이 철거 계고장을 받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막막해지는 장면으로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난장이인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영희는 가족이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극복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어머니는 철거 계고장을 받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있다.

④ 영호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시종일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칠게 행동하고 있다.

⑤ 영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동생인 영호의 조롱과 비아냥 거림에도 대꾸하지 않으며 화제를 돌리고 있다.

6 S# 17에서 어머니는 가장인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 밖으로 나서는 난장이를 가족들이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가족들이 가장을 비난하고 싶어 한다고 보기 어렵다.

7 ㉠에서 난장이는 철거 계고장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에서 가장으로 책임감을 느끼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으므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일을 하러 나간다.

8 난장이 가족은 도시 재개발 때문에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가난한 소의 계층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던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ㄷ). 또한 아버지인 난장이와 영수, 영희가 성실하게 일해도 집이 철거될 위기를 극복할 돈이 없어 막막한 처지로 내몰리는 데에서 도시 빈민들이 성실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ㄱ).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양복들 짝 빼입고 와서는, 허가 내준다고” 말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 선거철에만 도시 빈민을 찾아가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ㄹ).

9 영화가 쓰러진 꽃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삽입한 이유는 현재의 시련을 딛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영희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032 메밀꽃 필 무렵_ 이효석 원작, 동희선·홍윤정 각본 252~255쪽

키포인트 체크 장돌림, 친구, 동이, 여름, 추억

1 ③ 2 ⑤ 3 ② 4 허생원이 충주집에서 동이의 따귀를 때렸음. 5 ④
6 ③ 7 ② 8 나도 이제부터는 자네처럼 땀땀기나 좀 사볼까?

1 이 글에서 허생원은 조 선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하고 있다. 따라서 허생원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조 선달을 속이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회상에 잠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교활한 표정을 지어 달라는 지시 사항도 적절하지 않다.

① 오답 틀어보기 ① S# 43에서 조 선달이 동이를 보고 ‘걸음도 빠르고 힘이 센 녀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이가 힘이 세다는 특징과 극중 나이를 고려하여 동이 역은 젊고 힘이 세 보이는 배우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달이 뜬 밤이므로 달이 뜬 저녁에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등장인물인 허생원, 조 선달, 동이는 모두 장돌림이므로 직업에 맞는 의복, 방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S# 42에서 카메라를 수직으로 위를 향하여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인 ‘틸트업’을 적용해야 하므로 적절한 지시 사항이다.

2 [A]에서 조 선달이 ‘달 밝은 밤’이면 하는 이야기를 해 보라며 허생원을 부추기자 허생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 도도무지 알 수가 없어.”라며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조 선달은 주인공인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①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인물 간의 갈등이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조 선달이 허생원의 삶의 내력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조 선달이 허생원의 숨겨진 심리를 파헤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A]에서는 조 선달의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이라는 대사를 통해 배경을 간단히 제시한 것과는 달리 <보기>에서는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라는 묘사를 통해 달 밤의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① 오답 틀어보기 ① 시나리오인 [A]와 달리 소설인 <보기>에는 서술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으므로 작중 인물이 서술자로 등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A]의 조 선달은 물리도록 듣고, <보기>의 조 선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A]와 <보기> 모두 조 선달이 허생원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A]와 <보기> 모두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와 <보기> 모두 허생원의 이야기에 대한 조 선달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4 허생원과 조 선달은 뒤따라오는 동이가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원인은 S# 43의 허생원의 대사(“아까 충주집에서 나한테 따귀 맞은 그 일 때문에?”)를 통해 알 수 있다. 평소 충주댁에 관심이 있던 허생원은 동이가 충주댁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동이를 꾸짖으며 따귀를 때렸다.

5 조 선달이 물에 빠진 허생원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허생원이 평소와 다르게 물에 빠지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조 선달이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①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의 인물들은 길을 따라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② 허생원은 동이와의 오해가 풀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는 허생원이 젊은 나이에 장돌림을 하는 동이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긍정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장돌림이다. 따라서 그들은 장에서 장으로 이동하며 떠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⑤ 허생원은 봉평이라는 말에 놀라고 있다. 그것은 성 서방네 처녀와 단 한 번의 인연을 맺었던 곳이 봉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이가 성 서방네 처녀의 아들, 즉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6 (가)에서 조 선달은 동이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동이의 안타까운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보기>에서 조 선달은 허생원이 동이를 꾸짖었던 일 때문에 동이가 자신과 허생원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7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하여, 이제 진짜 아들과 가족이 생겼으므로 이전까지 가족처럼 여기던 나귀 새끼에게 애정을 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8 허 생원은 장돌림으로 평생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아왔다. 평생을 방랑하며 살아온 그가 추억할 만한 일은 오로지 성 서방네 처녀와의 만남뿐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친아들로 짐작되는 동이를 만나 성 서방네 처녀, 동이와 함께 살고 싶은 욕구와 설렘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나도 이제부터는 자네처럼 땅땀기를 사 볼까?” 하는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곳에 정착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허 생원의 욕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033 김 씨 표류기_ 이해준

256~259쪽

키포인트 체크 남자, 여자, 밤섬, 희망

- 1 ① 2 ⑤ 3 ④ 4 삶의 희망이 없어 자살을 선택했던 남자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일은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5 ② 6 ③ 7 ⑤ 8 ④ 9 남자의 사진으로 도배된 벽면

- 1 이 글에는 여자가 망원 렌즈를 통해 남자가 배달원에게 ‘뭐라 뭐라’ 말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장면과 짜장면은 자신의 희망이라고 여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만 드러나 있을 뿐 여자가 짜장면을 보낸 것에 남자가 고마움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④ 배달원은 짜장면을 배달하러 밤섬에 갔는데 남자가 짜장면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짜장면을 여자의 집으로 다시 배달하느라 매우 지친 상태이다.
 ⑤ S# 83에서 배달원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은 모습을 보고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를 통해 남자가 짜장면을 거절하여 배달원이 도로 가져올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2 배달원은 여자에게 짜장면을 갖다 주면서 남자가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일을 삶의 희망으로 여기고 있음을 전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남자가 농사를 짓고 짜장면을 만들어 먹으려는 의도와 의미를 여자가 이해하게 되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배달원은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짜장면을 보냈다는 것만 알려 줄 뿐 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④ 남자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여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 3 남자가 짜장면을 돌려보낸 것은 짜장면을 삶의 희망이자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여자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여자와 소통하려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③ 타인이나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온 여자는 배달원과 대면하는 것을 꺼리고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소통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⑤ 등장인물의 이름 없이 성(姓)만 제시하여 진정한 소통 없이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장 보편적인 성인 김씨로 설정하여, 등장인물이 겪는 단절과 고립이 현대인 대부분이 겪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 4 남자는 밤섬에 오기 전에 빗 독촉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했다. 경

제적으로 실패를 겪으면서 삶의 희망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손수 농사를 지어 짜장면을 만들어서 먹는 일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짜장면이 자신에게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5 남자는 짜장면을 먹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느라 짜장면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성취감과 뿌듯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회한이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자의 감정을 고려할 때, 이 장면에서 빠르고 경쾌한 행진곡을 배경 음악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6 ㉠은 남자가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한 여자의 감격, 기쁨, 격려의 의미가 담긴 눈물이지 남자의 고통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은 아니다. 여자는 남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 7 불박이장은 여자가 주로 잠을 잘 때 이용하던 공간으로, 극단적인 고립과 폐쇄성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매일 불박이장 안에서 잠을 자던 그녀가 남자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 뒤 불박이장을 관처럼 비좁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자신의 고립된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자와의 소통과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그녀만의 고립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오답 틀어보기] ④ 불박이장을 비좁은 관에 빗땀 정도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고립된 삶을 살던 여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 8 <보기>에서 남자는 여자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여자는 남자의 질문에 고민한다. 남자는 그동안 자신을 관찰하던 여자에게 그녀의 정체를 물으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소통하려 한다. 그러나 남자의 질문을 되뇌다가 마음이 복잡해져서 이불로 얼굴을 덮는 여자의 반응으로 볼 때,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③ 남자가 여자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내려는 모습과 여자가 남자의 질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졌던 두 사람의 소통 양상이 변화하고, 그 결과 극단적인 고립과 단절 속에 머물러 있던 여자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균열이 생길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9 (다)에서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찍어서 방 안의 한 벽면에 붙이는데, 그 벽면은 남자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여자가 그동안 남자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벽에 붙여 왔음을 알 수 있다.

034 고맙습니다_ 이경희

260~263쪽

키포인트 체크 기서, 영신, 푸른도, 의사, 섬, 갈등

- 1 ④ 2 ③ 3 ③ 4 ⑤ 5 환자의 상처를 더 크게 연다(벌린다), 얼굴에 묻은 피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댄다. 6 ③ 7 ③ 8 ④ 9 여기 이 사람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치워. 당장! 10 영신에게 화가 나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기 때문이다.

- 1 '메스, 클램프, 페머털 아르테리, 패드' 등 의학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기서, 중수, 소란 등의 직업이 의료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배경 묘사나 시간의 경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상징적 소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장황한 해설이나 풍자적 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 2 중수는 (나)에서 기서가 응급 처치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라)에서 기서가 '페머털 아르테리'를 잡은 뒤에야 자신감을 찾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서에 대해 믿음이 있었다는 ③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보기 ① (라)에 제시된 '다시는 의사 짓을 앉겠다던 결심을 어긴 것에 대한 갈등이 복잡하게 스치는'이라는 지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와 (다)를 보면 기서가 아버지인 준호에게 배운 의술을 써서 보람 부를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메스로 상처를 더 크게 여는 기서의 행동에 경악하는 박 씨와 보람 모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중수와 소란이 기서가 출혈 부위를 잡고 서야 정신을 차리고 응급 처치를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 3 기서가 준호에게 "다신 의사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연이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안 합니다, 다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①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우쭐하다'는 '의기양양하여 뽐내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초조하다'는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겸손하다'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비굴하다'는 '용기나 죽대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쉽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S#9는 3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여 보여 주는 장면이므로 ㉠에는 '플래시백(Flashback)'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5 (다)에서 과거에 준호가 환자의 상처를 더 벌려 혈관을 잡은 뒤,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기서의 어깨에 닦았던 것처럼 (나)에서 기서는 환자의 상처를 더 크게 열어 혈관을 잡은 뒤 (라)에서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중수의 어깨에 닦고 있다.
- 6 (가)에서 기서가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 이 사람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치워, 당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영신은 (나)에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에 나타난 기서와 영신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나)에 나타난 갈등은 기서와 영신 간의 갈등으로,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 나타난 기서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가)에 나타난 사건은 (나)에서 기서와 영신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 7 기서가 마을 사람들의 진료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껴 의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기서가 지민의 수술을 실패했던 것처럼 다른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 8 기서는 마을 사람들을 진료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박 씨는 마치 기서가 박 씨를 진료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기서가 어이없어한 것이다. 따라서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는 뜻의 속담인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가 ㉠의 상황과 잘 어울린다.
오답 풀이보기 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말이다. ②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일이 안 되려면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밖의 큰 불행도 생긴다는 말이다. 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놈 한 번 더 때린다'는 미운 놈은 미워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뒤에 화를 입을 수 있어서 마지못해 떡 하나를 더 주지만 우는 놈은 당장 듣기 싫어서 울음을 멈추라고 한 대 더 때리게 된다는 뜻으로, 미운 놈보다 우는 놈이 더 귀찮음을 이르는 말이다.
- 9 (나)에서 영신은 '치우다'는 물건을 치운다고 할 때나 쓰는 말이라고 기서에게 말하면서 기서가 마을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치워, 당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 10 기서는 자신의 속사정도 모른 채 자신에게 화를 내는 영신에게 화가 나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도 싫어 '아줌마'라고 부르며 영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

0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_ 노희경 원작, 민규동 각색 264~267쪽

키포인트 체크 가족, 치매, 암, 이별

1 ⑤ 2 ④ 3 ③ 4 ① 5 인희는 친정 엄마를 잃고 남편과 자식들과 떨어져 외롭게 살았고, 할머니도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다. 6 ② 7 ⑤ 8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외롭게 살아왔으며, 암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인희의 고된 삶을 위로하고 있다.

- 1 할머니는 잠깐 동안 정신이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인희에게 닥친 상황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희가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배려해서 모른 척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 (나)와 (다)에는 죽음을 앞둔 인희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리와 행동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② (나)와 (다)에서 주인공인 인희가 등장하는 장면의 공

간은 인희의 집 화장실로,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정수가 정철에게 인희를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모습과 인희가 할머니에게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애절한 마음을 전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거나 극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정수는 아빠 정철에게 자신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하며 엄마 인희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고,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정철은 눈물을 참고 있다. 따라서 정철은 아들을 대견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과 함께 큰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④ 정철은 정수와 같은 심정이겠지만 애원하고 오열하는 정수를 안아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인희는 슬픔과 안타까움에 차마 할머니의 눈을 쳐다보지 못한 채 힘겹게 말을 이어 가고 있다.

4 인희의 대사로 보아 인희는 젊었을 때 할머니에게 구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여 지내면서 할머니와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어울리는 말은 '짜우다 정 든다'이다.

☞오답 틀어보기 ② '모란 돌이 정 맞는다'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 또는 강직한 사람은 남의 공박을 받는다는 말이다.

③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 먼 곳에 있는 일가보다 더 친하게 되어 서로 도우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④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고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는 인정에 의한 사귀기가 있어야만 참된 사귀기라는 말이다.

5 S# 146의 인희의 대사를 통해 인희와 할머니의 삶을 알 수 있다. 인희는 일찍이 친정 엄마를 잃었고, 남편 정철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외롭게 살았다. 할머니 역시 남편(인희의 시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 남편이 젊었을 때에는 복에 두고 온 정인을 잊지 못해서, 늙어서는 중풍에 걸려서 할머니를 고생시키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다. 인희와 할머니의 삶에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정을 붙이면서 살았던 것이다.

6 <보기>는 아내와의 사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노래한 시의 일부분이다. <보기>에서 화자는 '넙치 지지미' 반찬을 올려 밥상을 차렸었던, 일상을 함께 나누 아내가 지금은 부재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공허해하고 있다. (나)에서 정철은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인희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나) 모두 소소한 일상에서 아내의 부재를 느끼고 그리워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고통이나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 내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7 <보기>의 "정철은 오열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며 그렇

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었다."에서 아내를 떠나보낸 정철의 슬픈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를 (라)의 "(아내의 죽음을 느낀다. 보지 않고)", "눈물이 툭 떨어져 인희의 뺨 위로 흐른다."라는 지시문과 비교했을 때 (라)가 <보기>보다 정철의 슬픔을 절제하여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8 인희는 평생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인희에게 할머니가 '호오오오' 입김을 불어 주는 장면을 통해, 인희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작가의 태도를 알 수 있다.

036 그대를 사랑합니다_ 강풀 원작, 이만희 각색 268-271쪽

키포인트 체크 만석, 송 씨, 무관심, 송 씨, 이름

1 ⑤ 2 ③ 3 ③ 4 만석이 송 씨가 손수레 끄는 일을 돕고 송 씨에게 우유를 건넸다. 5 ⑤ 6 ③ 7 ② 8 송 씨에게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석에게는 송 씨를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 만석이 송 씨에게 "(눈이 오는) 이런 날은 쉬지……."라고 말하지만 이는 송 씨를 걱정하여 한 말이지 송 씨가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③ S# 4에서 만석이 송 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만석이 통명스러운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송 씨를 도와주고 우유를 건네는 행동을 보면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S# 4에서 만석은 자신이 건네는 우유를 거절하는 송 씨에게 "나, 보면 알겠지만,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만석이 자신의 고집 센 성격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만석은 S# 4에서 송 씨에게 식구나 자식이 없음을 알게 되고, S# 45에서 통성명을 하면서 그동안 이름도 없이 살아온 송 씨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다.

2 ㉠에서 만석이 질책하는 대상은 송 씨가 아니다. 불특정인 인물에게 "연탄재라도 좀 뿌려 놓지."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이는 송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했다는 생각에 화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은 "이런 날은 쉬지……. 뭣 하러 나왔어? 이깃까지 주워서 몇 폰이나 번다고……!"라는 만석의 핀잔 섞인 대사를 탐탁지 않아 하는 송 씨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② ㉡은 "아무도 없는 게야? 밥 맥어 줄 식구나 자식이 없어?"라는 만석의 대사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서글퍼지는…….'이라는 지시문을 통해 송 씨의 침묵에는 서글픈 감정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만석이 송 씨에게 우유를 건네고 있는 장면으로, 만석이 송 씨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는 "주인 님아 소리 한번 요란하네."라고 말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는 지시문을 통해 송 씨가 만석에게 경계심을 풀고 궁

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내레이션(NAR.)'은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場外)에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서는 송 씨의 내레이션을 통해 송 씨가 과거에 겪은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④ 남편의 매질을 견디며 살아온 비극적인 삶이 나타나 있지만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4 S# 4에서 만석은 눈이 내리는 밤, 언덕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송 씨를 보게 된다. 이에 만석은 손수레를 끌어 주고, 뼈 건강에 좋으며 송 씨에게 우유를 내민다. 이러한 만석의 행동에는 송 씨를 향한 관심과 호의가 담겨 있다.

5 S# 58을 보면 송 씨는 주민 등록을 한 적이 없고, 주민 등록증 역시 발급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송 씨는 현재 주민 등록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오답 풀이보기 ① '송이뽀'이라는 이름은 만석이 지어 준 것이다.

② 송 씨는 식구나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③ S# 61에서 연아가 송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송 씨는 한글 연습을 하고 있다. 송 씨가 한글을 잘 쓸 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독거노인 보상 급여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는 연아의 말을 듣고 송 씨는 한 달을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이라고 말하며 고마워한다. 따라서 송 씨가 한 달을 꼬박 모아도 15만 원을 벌기 힘든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A]를 보면 송 씨의 대사와 행동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송 씨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대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심리를 짐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기>에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송 씨가 느끼는 창피함과 서글픔, 이름을 지어 준 만석에 대한 고마움 등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송 씨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독자가 송 씨라는 인물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② [A]를 <보기>처럼 바꾸었을 때 만석과 연아의 갈등 양상에는 변화가 없다.

⑤ [A]와 <보기>에서 연아의 역할 비중은 변화가 없으며, [A]와 <보기> 모두 인물 간 대결 구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7 이 작품은 노인들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삼아, 무관심 속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외된 노인 세대의 삶을 그리고 있다. (가)와 (나)는 송 씨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혜택이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채 이름도 없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따라서 이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는 주변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반응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보기 ③ 만석이 송 씨에게 지급될 돈이 적다고 말한 것은 적은 액수의 돈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송 씨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심정이 담긴 표현이다. 또한 송 씨는 그 금액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의 돈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연아는 송 씨에게 주민 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나친 원칙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연아와 주민 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송 씨를 도우려는 모습을 고려하면 행정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만석과 송 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이다. 이 글에는 만석과 송 씨의 관계를 편견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글은 노년의 사랑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 계층에 대한 관심을 바라고 있다.

8 평생을 이름도 없이 힘겹게 살아온 송 씨는 만석의 도움으로 '송이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송 씨는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만석은 '송이뽀이다'라는 의미를 담아 송 씨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 송 씨를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037 뿌리 깊은 나무_ 이정명 원작, 김영현·박상연 각색 272~275쪽

키포인트 체크 백성, 백성, 세종, 반대, 백성, 유학

1 ⑤ **2** ③ **3** ③ **4** 훈민정음 창제는 성리학(유학)을 버리는 것인가?
5 ③ **6** ④ **7** ③ **8** ②: 글을 아는 사대부만이 권력을 가짐. ⑥: 모두가 글자를 읽고 쓰게 되어 사대부의 권력이 무너짐.

1 이도의 대사에 한자를 아는 관료들이 중간에서 백성들의 뜻을 왜곡하고 편집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보기 ① 언로를 퇴위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라는 이도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유학의 도라는 혜강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유생들의 시위와 이적의 글자(이도가 만드는 글자)에는 유학의 도를 담을 수 없다는 혜강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임금에게 올리려고 할 때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도의 대사를 통해 백성들은 임금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2 혜강은 '무(武)' 자를 예로 들어 훈민정음 창제가 성리학을 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가 '작개언로 달사총'을 언급하며 혜강의 논리를 반박하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혀를 찌르는 이도의 발언에 당황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 이도는 유학에서 강조하는 덕목인 '작개언로 달사총'을 인용하고, 정도전이 쓴 <경제문감>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여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이 유학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ㄱ). 또한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와 같이 물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유학을 버린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ㄴ).

4 '쟁점'이란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의미한다.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유생들의 시위에 이도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얘기하라고 하며, 혜강과 논쟁을 벌인다. 이도는 훈민정음 창제가 성리학을 버리는 것이라는 혜강의 주장에 대해 '작개언로 달사총'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훈민정음 창제는 오히려 성리학을 따르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쟁의 쟁점은 '훈민정음 창제는 성리학(유학)을 버리는 것인가?'로 볼 수 있다.

5 사대부들이 한자를 사용해 왔던 것은 맞지만 사대부들이 한자를 써 왔기 때문에 '이 글자'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② 어린아이인 연두는 '이 글자'를 배우지 못할 만에 문장을 쓰고 가리온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이를 통해 '이 글자'가 어린아이가 금세 쓸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쓰기 쉬운 글자이고, 일반 백성들도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6 ㉠의 '콩!'은 개파이와 연두가 새로운 글자를 빠르게 익힌 것을 본 후 가리온이 보인 반응으로, 새로운 글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한 후 느낀 놀라움과 충격이 나타나 있다. 새로운 글자가 누구든 배우고 쓰기 쉬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의 '콩!'은 가리온이 한가놈의 말을 들은 후 보인 반응이다. 새로운 글자의 정체를 확인한 가리온은 새 글자의 반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지만 인신적 거래일, 즉 집현전을 없애는 조건으로 새 글자의 반포를 수용하기로 한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에는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느끼는 당혹감이 나타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문맥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글을 터득한 연두와 개파이의 능력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들 만에 글자를 쓸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글자가 배우고 쓰기 쉽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7 가리온은 배우고 쓰기 쉬운 새로운 글자가 반포되면 일반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조선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대부만이 누리던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새로운 글자가 백성들의 언론 확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사대부가 사대부인 이유"는 "글을 알기 때문"이라는 가리온의 대사를 통해서, 가리온이 사대부는 일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자를 읽고 쓸 줄 알기 때문에 사대부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리온도 한자가 백성들에게 어려운 글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가리온은 [전제]의 내용처럼 글자가 힘, 권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글자를 쓰기 전에는 한자를 아는 사대부만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새로운 글자를 쓰게 되면 모든 백성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사대부만이 누리던 힘과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만 구 상무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일한은 영광이 자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② 일한은 '누구'라는 불특정한 비교 대상을 설정하여 영광의 성실함, 뛰어난 재능 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일한은 구 상무가 과거에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행위를 언급하며 영광을 무대에 세우는 일에 구 상무가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④ 구 상무는 "절대 못 올라가지."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영광을 무대에 세워 달라는 일한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영광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일한의 헌신적 도움과 준상의 협조에 힘입어 뮤지컬 오디션 결승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광이 참된 가치를 위해 홀로 외롭게 싸웠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준상은 일한의 진솔하고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여 영광을 무대에 세운다. 따라서 준상은 참된 가치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일한이 학력을 위조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참된 가치를 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일한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하였지만 이 사실을 들킬까 봐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왔고, 자랑처럼 여기던 자신의 가짜 학력은 구 상무에게 협박당하는 약점이 되어 버렸다. 일한이 스스로 자신의 학력 위조 사실을 폭로한 것은 거짓 가치의 모순을 깨닫고 참된 가치를 선택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⑤ 성희는 일한이 영광을 무대에 세우기 위해 준상에게 굴욕적인 행위를 감수하는 것을 보고 울컥한다. 이는 일한의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일한은 ㉠에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준상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고, ㉡에서는 절박한 심정을 격정적으로 드러내며 준상에게 매달리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과 ㉡ 모두 영광이 무대에 올라가지 못할 위기에 처한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발화이다.

③ ㉠에서 일한은 ㉡에서와 달리 준상에게 존칭을 써 가며 공손한 어투로 영광을 무대에 세워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④ ㉠에서 일한은 고개를 숙이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 일한은 준상이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켜세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며 자책하고 있다.

4 준상이 영광의 손을 잡는 이유는 일한의 진솔하고 간곡한 모습에 감동하여 일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영광을 무대에 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5 (나)에서 일한은 영광이 무대에서 머뭇거리자 과거에 무대에서 날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영광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에 힘입어 영광이 공연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에는 영광이 당황하여 무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③ (다)에는 영광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내 관객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가)~(다)에서 일한은 영광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038 마이 리틀 히어로_ 안호경 각본, 황조윤 각색 276-279쪽

키포인트 체크 일한, 영광, 스튜디오, 뮤지컬, 우승

1 ⑤ 2 ② 3 ② 4 준상이 일한의 진심어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무대에 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5 ② 6 ③ 7 ① 8 ④ 9 전 얼굴도 까말고…… 그런데 정조 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아빠도 없고…… 아빠는 날 창피해하는데…… (설움이 복받쳐 더듬거리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1 구 상무는 일한이 현 상황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

- 6 영광은 어렵사리 무대에 섰지만 그동안 자신이 받아 온 차별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라 노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S# 118에서 영광의 대사를 보면 얼굴이 까맣다고 놀림받았던 것, 자신을 창피 해하는 아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차별받았던 일 등 그동안 받은 상처에 대한 자책이 노래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7 '취 죽은 듯'은 매우 조용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틀어보기 ② '쇠귀에 경 읽기'는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③ '구렁이 담 넘어가듯'은 일을 분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리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월승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는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8 ㉠은 영광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가 갈등을 심화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의 아름다운 영광의 목소리 때문에 ㉡에서 관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⑤ ㉠의 목소리는 영광이 내는 소리이고, ㉡의 목소리는 관객들이 환호하는 소리이다.
- 9 이 글은 영광이 겪은 어려움을 영광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고 있다. 영광은 무대에 섰지만 그동안 자신이 받은 상처들이 떠올라 노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영광이 S# 118에서 자책하듯 말하는 대사에 그동안 겪어 온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

039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원작, 최민석 외 각본

280~283쪽

키포인트 체크 조로증, 서하, 전자우편, 별동별

1 ① 2 ④ 3 ④ 4 ⑤ 5 긍정적 기능: 아름이 이성에 대한 설렘과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한다. 부정적 기능: 서하의 정체를 알게 된 아름에게 큰 상처를 준다. 6 ⑤ 7 ⑤ 8 ③ 9 ② 10 아름이 실명하는 순간을 아름의 시각에서 형상화한 것이다.

- 1 이 글의 중심인물은 아름과 그의 부모 대수, 미라이다. 열여섯 살 소년 아름은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신체 나이는 여든 살이 넘는다. 그리고 열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대수와 미라는 투병 생활 중인 아들 아름을 위해 애쓰는 인물로, 이들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전환할 때 것으로 바꾸는 촬영 기법은 '몽타주'가 아니라 '컷 투(cut to)'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몽타주'는 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 편집하는 기법이다.

- ②, ③ 아름이 답장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이미지(영상)를 몽타주로 제시하여 서하와의 교신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⑤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 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몽타주'에 의해 만들어진 장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
- 3 (나)에 나타난 내용은 소박하고 일상적인 순간들로, (나)는 건강하고 평범한 삶에 대한 아름의 소망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④는 아름이 소망하는 건강하고 평범한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다.
- 4 아름은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대수, 미라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런 아름이 평소와 다르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은 서하의 실체를 안 뒤 느낀 배신감, 분노 등을 표출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 때문에 아름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②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라는 아름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은 평소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아이였다. 그런 아름이 ㉠처럼 행동한 것은 이전과 달리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④ 아름이 미라와 대수의 말을 듣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은 서하의 실체를 알고 나서 받은 충격, 세상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등 복잡한 심경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 5 '서하의 편지'는 투병 중인 아름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아름이 이성에 대한 설렘과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하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름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기도 한다.
- 6 이 글에서는 아름과 대수가 하늘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별동별을 바라보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7 ㉡은 대수가 아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말로, 놀람과 염려와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므로 권위 있는 충고와는 거리가 멀다.
- 8 아름과 대수의 갈등이 해소되고 함께 유성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는 상황이다. 대수가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좋다. (한숨) 아름이 너같이 괜찮은 애는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대수가 아름을 깊이 사랑하고 아름이 아픈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수가 ㉡에서 "아름이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소원을 빌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9 ㉢는 아름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애써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통해 아름이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10 ㉣는 아름이 시력을 잃는 순간을 아름의 시각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키포인트 체크 할아버지, 할머니, 황성, 임종(죽음), 옷

1 ㉓ 2 ㉓ 3 ㉒ 4 할아버지의 옷을 태워 줘야 할아버지가 저승에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할아버지와 이별을 앞두고 절박함과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6 ㉔ 7 ㉑ 8 ㉔ 9 이승과 저승의 경계 10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소재

- 이 글은 이별로 인한 슬픔을 주로 정경(情景)을 통해 서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ㄱ). 이 글의 (가)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정겹고 행복한 일상을 보여 주는 반면, (나)~(라)에서는 할아버지와 이별을 앞둔 할머니의 슬픔이 드러나 있어 (가)와 대조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ㄷ).

오답 틀어보기 나. 이 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드. 이 글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㉑에서 할머니는 죽음 이후에 할아버지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㉓은 절망적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승화하는 시의 일부분으로, '남'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사랑을 잃고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 화자의 공허한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이별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와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④ 고달프게 살아온 어머니의 한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이 글의 ㉒에는 연출자가 할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불에 태워 줘야 입는데요~ 할아버지는 내가 다 챙겨 줘야 돼요."는 할머니가 연출자에게 한 말이다.
-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옷을 태우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승에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할머니가 울면서 할아버지의 여윈 몸을 쓰다듬는 것은 할아버지와 이별을 앞두고 할머니가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 절박함이 담겨 있는 행동이다.
- ㉑과 같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과거에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함께 나들이 했던 장면을 삽입한 이유는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과 할아버지와 이별을 앞둔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이 대비되어 이별로 인한 슬픔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보기>의 임이 물을 건너지 말라는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갔지만, 이 글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이 글에 나타난 입관, 선산으로 향하는 것, 무덤가에서 불을 피운 것 등은 장례 절차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기>에는 이런 장례 절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㉑에서는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에서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빈 의자만 남아 있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할아버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할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과 빈 의자만 있는

장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할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 디졸브는 장면을 자르듯 분리하지 않고 앞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차로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다.
 ⑤ 이 장면에서 디졸브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㉒의 '재'는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를 뜻하는 말로, 이 글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상징하고 있다.
- 할아버지가 건강하던 시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눈이 내리면 눈싸움도 하고 함께 눈사람도 만들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㉓는 노부부의 추억이 깃든 소재이다.

키포인트 체크 하리, 하리, 아린, 고등학교, 문화, 하리

1 ㉓ 2 ㉓ 3 ㉑ 4 ㉔ 5 ㉔ 6 문제 상황: 아린이 지원서의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보컬 동아리가 노래 동아리 경연 대회에 나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잘못된 점: 창렬은 지원서를 던지면서 아린을 비난했고, 아린은 격정하는 창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다. 7 ㉔ 8 ㉓ 9 ㉒ 10 ㉔ 11 아린에게는 노래 동아리 경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리에게는 동아리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노래도 맘껏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 노래 동아리 경연 대회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몰랐던 아린의 실수로 보컬 동아리의 대회 참가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은 맞지만 신청 마감일까지 하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② S# 3에서 형수는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피자를 '이탄 음식'이라고 표현한 하리에게 말이 심하다며 화를 내고 있다.
 ③ S# 4에서 창렬은 "너 때문에 우리가 반년 넘게 준비한 대회 못 나가게 생겼잖아!", "난 이게 마지막 대회인데!"라며 아린에게 화를 내고 있다.
 ④ S# 1에서 하리의 피자를 먹으려는 형수를 반장이 제지한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한 명당 한 조각씩만 먹으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 S# 3을 보면 하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피자를 먹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형수와 반장에게 "나..... 이탄 음식 안 먹습니다."라고 말하여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다. 하리가 한국어에 서툴러 형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답 틀어보기 ③ 형수에게는 하리의 "나..... 이탄 음식 안 먹습니다."라는 말이 자신을 포함한 반 친구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형수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S# 3에서 하리는 서툰 한국어 때문에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을 "나..... 이탄 음식 안 먹습니다."로 표현하여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리도 놀라고 당황한 상황이므로 ㉑에 들어갈 지시문으로는 '놀라며'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틀어보기 ② '당돌하다'는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

이 올라고 다부지다'라는 뜻이므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노려보다'는 '미운 감정으로 어떠한 대상을 때집게 계속 바라보다. 또는 탐이 나서 눈독 들여 겨누어 보다.'라는 뜻이므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의아하다'는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4 ㉠에서 창렬이 아린에게 '홍아린 벤치로 당장 튀어 올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아린이 빨리 뛰어와야 할 만큼 매우 급한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급한 일이 창렬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급한 일이 무엇인지는 S# 4에 나타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현재의 상황에서 아린의 책상에 초콜릿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③ 문자 메시지 한 건만을 보고 사귀는 사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며 S# 4의 내용을 보아도 무리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⑤ 문자의 내용을 보고 창렬의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은 창렬이 아린에게 대회 지원서를 꼼꼼히 읽어 보라고 당부했음에도 아린이 지원 자격을 확인을 하지 않아 대회 참가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창렬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굽어 부스럼'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는 미리 당부를 했음에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아린에게 화를 내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이다. 반년 넘게 준비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당황스러운 창렬의 심리를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② '다 된 죽에 코 빠졌다'는 거의 다 된 일을 망쳐 버리는 주책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창렬이 느끼는 허무함과 실수한 아린에 대한 야속함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③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아린이 실수한 상황에서 창렬의 심리를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⑤ '아는 길도 물어 가겠다'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이다. 창렬이 아린에게 지원서를 꼼꼼하게 읽어 보라고 조언까지 한 상황에서 아린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창렬의 심리를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6 (다)에서는 아린이 4명 이상의 동아리만 참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아린의 보컬 동아리가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는 창렬과 아린의 모습을 보면 둘 다 상대방에게 잘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렬은 화가 나서 지원서를 던지면서 아린을 비난하고 있으며, 아린 또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창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동아리 회원을 구해 오겠다고 떠났다. 대회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예의를 어긴 것이다.

7 S# 5의 '심각한 표정으로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리며'와 같은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을 설명하여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이 글은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순행적 구

성을 취하고 있다.

⑤ 내레이션은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해설자나 인물의 목소리만 나오는 기법으로 이 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S# 5에서 아린의 대사는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독백으로, 내레이션과는 구별된다.

8 (나)에서 아린은 하린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며 거절하는 하린에게 아린은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 살 거야?"라고 하며 계속 혼자 지낼 경우 겪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하린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③ 아린이 하린에게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도 좋다며 장점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있지만, 하린이 이를 인정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9 S# 6에서 하리는 아린의 동아리 가입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있다. 그런 뒤 S# 7에서 아린이 새 회원을 데려왔다는 정우와 창렬의 대사로 볼 때 하린이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③ 하린이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아린의 동아리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예측은 가능하나 대회에서 우승할지는 알 수 없다.

⑤ 아린이 하린에게 건넨 것은 '동아리 가입 신청서'가 아닌 '노래 동아리 경연 대회 참가 신청서'이다. 따라서 하리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친구를 사귀고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10 S# 5에서 하리는 '백만 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려야 한다.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아린은 자신의 실수로 대회 참가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S# 5에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S# 5에서 아린은 혼자 분리수거하는 하린을 보며 '연민이 폭발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연민'은 상대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므로 혼자 분리수거하는 하린이 안쓰러워 도와주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S# 5에서 하리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 아린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린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일부러 무시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⑤ S# 7에서 정우는 새 회원이 누구인지 보고 와서 창렬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 회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처럼 말한 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하린이 아린이 속한 보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아린에게는 동아리 회원 수를 채워 노래 동아리 경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린에게는 아린이 말했다 것처럼 동아리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노래도 맘껏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